장애예술 비평포럼

지금의
장애예술을 묻고
다음을
여는 질문

평장 評場,
모두예술을 해부하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6.11.10.(화) 13:00

이음센터 5층 이음아트홀

지금의
장애예술을 묻고,
다음을
여는 질문

장애예술 비평포럼

평장評場,
모두예술을
해부하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예술 비평포럼 — 평장評場, 모두예술을 해부하다

기조발제 김예지 국회의원

「한국 장애예술의 발전 과정과 향후 과제」

— 지원의 확대를 넘어, 가치와 역사를 축적하는 예술생태계로

좌장 박신의 예술기업가정신연구소 소장 ·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고문



장애인문학의 흐름과 가치

발제 맹문재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장애인문학의 현황과 발전 방안」

토론 최명숙 시인, 보리수아래 대표

「장애인문학의 현장에서 바라본 창작과 비평」

— 보리수아래의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장애인미술의 발자취와 확장성

발제 박현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예술융합학과 교수

「창작주체, 예술적 가치와 비평 담론을 중심으로」

토론 이순화 작가,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 부회장

「장애예술의 주체는 누구인가」 — 당사자 예술가의 시선과 새로운 과제



장애인음악의 수월성과 사회적 영향

발제 전소영 협성대학교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 교수

「무대의 크기를 넘어, 역할의 지평을 넓히다」

토론 이남현 성악가, 한국장애음악인협회 회장

「음악가의 목소리로 바라본 모두예술」

종합토론 / 질의응답

인사말 방귀희 이사장「지금은 장애예술을 돌아볼 때」 ····· 5

기조발제 김예지 국회의원

「한국 장애예술의 발전 과정과 향후 과제」

— 지원의 확대를 넘어, 가치와 역사를 축적하는 예술생태계로 ····· 6

Session 1

문학 **장애인문학의 흐름과 가치** ····· 19

발제 맹문재「장애인문학의 현황과 발전 방안」 ····· 20

토론 최명숙「장애인문학의 현장에서 바라본 창작과 비평」

— 보리수아래의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 36

Session 2

미술 **장애인미술의 발자취와 확장성** ····· 47

발제 박현희「창작주체, 예술적 가치와 비평 담론을 중심으로」 ····· 48

토론 이순화「장애예술의 주체는 누구인가」

— 당사자 예술가의 시선과 새로운 과제 ····· 66

Session 3

음악 **장애인음악의 수월성과 사회적 영향** ····· 75

발제 전소영「무대의 크기를 넘어, 역할의 지평을 넓히다」 ····· 76

토론 이남현「음악가의 목소리로 바라본 모두예술」 ····· 86

부록 **장애예술 짧게 알아보기** 방귀희 ····· 95

지금은 장애예술을 돌아볼 때

C. 데이 루이스에 의하면, 최초의 예술인은 장애인이었다고 한다. 비장애인이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밖에 나가 있는 동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동굴의 벽에 사냥하는 모습을 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냥의 정보를 주었던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교양총서로 출간된 <한국장애인사(史)>(정창권 외, 2014)에서는 조선시대에 활동하였던 66명의 장애위인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66명을 직업별로 구분해보면 예술인이 3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올 4월 본원 2층 갤러리에서 '한국장애예술인 역사전—길이 된 사람들' 전시회를 통해 조선시대 장애예술인 12명과 근현대에 활동했던 장애예술인 14명 그리고 초창기 장애예술계를 이끌어온 프론티어 장애예술인 12명 총 38명 장애예술인의 서사와 작품을 전시하여 큰 관심을 모았다. 관객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감탄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네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우리나라 장애예술의 역사는 적어도 600년이 넘는다. 그 어느 나라도 이렇게 긴 역사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 장애예술의 역사를 바탕으로 세계가 놀라워할 만한 K-모두예술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의 장애예술을 냉정히 평가하여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하기에 오늘 이렇게 장애예술 평장을 통해 모두예술을 해부해보고자 한다.

하이데거의 예술론은 존재론에 기초하고 있어서 '예술가는 작품의 근원이고 작품은 예술가의 근원이다.'고 하였는데 이 명제는 장애예술인에게 더 명징하게 적용된다. 장애예술인은 사람과 작품이 일치한다. 작품에 자신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따라서 장애예술은 장애예술인의 생명이기에 예술작품이 유니크하다. 이것이 모두예술의 큰 장점으로 발전 가능성과 확장성을 담보해주고 있다.

2026. 11.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방귀희

「한국 장애예술의 발전 과정과 향후 과제」

— 지원의 확대를 넘어, 가치와 역사를 축적하는 예술생태계로

김예지 |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예지입니다.

장애예술비평포럼 「평장評場,모두예술을 해부하다」에서 한국 장애예술의 발전 과정과 향후 과제를 함께 논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묵묵히 창작의 현장을 지키며 장애예술의 길을 열어 오신 예술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문학과 시각예술, 음악을 중심으로 장애예술의 성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합니다. 저는 개별 작품에 대한 평가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장애예술을 어떻게 바라보아 왔습니까? 장애예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무엇을 변화시켰으며, 앞으로 무엇을 더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장애예술정책의 성과를 지원사업의 규모나 숫자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중심에는 언제나 창작하는 예술인과 그 작품이 있어야 합니다.

1. 복지의 대상에서 예술의 주체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예술활동은 오랫동안 치료와 재활, 여가와 사회참여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역할 역시 소중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만든 작품을 언제나 치유와 극복의 이야기로만 바라본다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 작품이 예술로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새로운 감각과 생각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마주할 때 우리는 때때로 작품보다 장애를 먼저 바라봅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사연에 감동하고 그 성취에 박수를 보냅니다. 물론 선의에서 비롯된 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동이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술가에게 필요한 것은 동

정이나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자신의 작품이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읽히고 해석되며, 때로는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작품의 예술적 성취와 새로운 시도, 부족한 점까지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장애예술인을 온전한 창작의 주체로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예술의 발전 과정도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던 시절에도 장애예술인들은 스스로 단체를 만들고, 연습실과 무대를 찾아 작품을 발표하며 자신들만의 예술적 언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날 장애예술의 성과는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정책을 만들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장애예술인들의 노력과 활동이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예술은 독립적인 문화예술정책의 영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창작지원과 교육, 일자리, 문화시설 접근성, 작품의 구매와 유통, 전문공간 조성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예술인을 단순한 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고유한 예술적 권리를 지닌 창작자로 바라보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은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예술인의 일상과 창작환경이 저절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도가 현장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그 기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음 작품과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제도의 진전과 입법의 결실, 그리고 남은 과제

저 역시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장애예술인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고도 발표할 무대와 유통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라도 구매와 유통의 통로가 없다면 창작활동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공연할 무대와 전시할 공간이 부족하다면 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일 기회조차 제한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이 실질적인 구매와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고,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가 일정 비율 이상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역시 법률에 담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입법을 추진한 이유는 장애예술인을 위해 별도의 자리를 하나 더 마련하자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장애예술인도 공공의 문화예술 자원과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작품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 규모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함께누리 지원 예산은 2017년 69억 5천만 원에서 2026년 322억 1천7백만 원으로 약 4.6배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예술 역량강화 사업 역시 같은 기간 38억 원에서 145억 1천3백만 원으로 약 3.8배 확대되었습니다. 문화시설 접근성 지원과 창작아카데미, 맞춤형 일자리 등 관련 사업도 다양해졌습니다.

모두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이라는 전문적인 창작·발표 공간이 조성된 것 역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확대와 함께 2025년 모두예술극장에서는 기획·제작 공연 등 9건에 9,296명이 관람했고, 모두미술공간에서는 4건의 기획·제작 전시에 6,351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는 장애예술인들이 작품을 발표하고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결코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무대에 설 기회 자체가 부족했고, 작품을 구매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공적 제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을 넓혀 온 변화는 분명 소중한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원 예산이 늘어난 만큼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도 안정되었습니까?

공연과 전시가 증가한 만큼 작품에 대한 평가와 비평도 활발해졌습니까?

사업의 종류는 다양해졌지만, 그 성과가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예술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에 정책이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규모의 확대가 곧 정책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가를 넘어, 그 지원이 장애예술인의 삶과 창작 현장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3. 지원사업은 늘었지만, 지속가능성은 충분한가

그동안 장애예술정책은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상당한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속도만큼 장애예술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수입은 2021년 평균 218만 1천 원에서 2024년 569만 2천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연간 창작활동 수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예술활동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가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난 3년간 문화예술 관련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44.3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원이 실제로 누구에게 도달하고 있는지, 지원을 받은 이후에도 창작활동을 이어 갈 수 있는지, 예술인의 경력과 작품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단년도 사업과 공모 중심의 지원방식이 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매년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선정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사업이 끝나면 다시 다음 해의 지원을 걱정해야 하는 구조라면 예술가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기보다 다음 공모를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예술정책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시행했는지가 아니라, 그 지원을 통해 예술인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는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지원사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예술인의 활동 경력과 작품이 축적되고, 그 성과가 다음 창작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4. 장애예술인을 언제까지 교육의 대상으로만 볼 것인가

또 하나 돌아보아야 할 것은 장애예술 교육정책의 방향입니다. 장애로 인해 배움의 기회에서 배제되어 온 사람에게 예술교육의 문을 넓히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술을 처음 접하는 사람과 전문예술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이미 오랫동안 활동하며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한 예술가에게 필요한 지원은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만을 성과로 삼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표할 무대가 부족한 문제를 예술가의 준비 부족으로 설명하거나, 작품의 유통경로가 없는 문제를 예술가의 역량 부족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창작환경을 개선해야 할 상황에서 예술가에게 다시 교육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해법이 아닙니다. 장애예술인이라는 이유로 평생 교육받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움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에게는 제작과 발표, 유통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예술가에게는 가르칠 기회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에게는 오랜 창작활동을 통해 쌓아 온 고유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감각에 맞는 창작방법, 접근하기 어려운 무대와 전시환경을 개선해 온 경험, 동료와 협업하고 관객과 소통해 온 지식은 다른 예술인에게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교육받은 장애예술인이 몇 명인지뿐 아니라, 그들이 직접 교육을 기획하고 후배 예술인을 가르칠 기회를 얼마나 얻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예술인 당사자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의와 멘토링에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필요한 접근성 지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수료자 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이 실제 창작과 전문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는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그 경험이 다시 새로운 창작으로 이어질 때 교육정책은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5. 작품은 늘었는데, 그 작품의 역사는 어디에 남아 있는가

이제 오늘 포럼의 중요한 주제인 비평으로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장애예술의 창작과 발표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분명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작품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건강한 예술생태계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술은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작품을 발견하고 감상하며, 다른 작품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평가와 비판이 오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기록으로 남아야 다

음 세대의 예술가와 연구자가 앞선 세대의 작업을 살펴보고 새로운 시도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평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장애예술 관련 지원사업에는 문학과 미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포함되어 왔습니다. 실태조사에 제시된 2017년부터 2026년까지의 장르별 지원 누적액만 보더라도 문학 약 29억 6천만 원, 미술 약 138억 9천만 원, 음악 약 112억 9천만 원, 연극 약 67억 9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원을 통해 탄생한 작품들은 지금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10년 전 발표된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오늘의 연구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당시의 평론과 관객의 반응, 작가가 발전시켜 온 작품세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합니까? 한국 장애문학과 장애미술, 장애음악의 발전 과정을 이야기할 때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기록과 비평은 얼마나 축적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이러한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원받은 작품의 숫자만 남기고 그 작품이 지닌 의미와 성취를 기록하지 못한다면, 해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이어 가지 못하게 됩니다. 공연 횟수와 관객 수는 사업의 성과를 보여 줄 수 있지만, 그 작품이 한국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창작과 발표를 지원하는 것에 더해 그 성과를 제대로 기록하고 평가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평은 작품에 대한 단순한 감상이나 평가에 머물지 않습니다. 창작자와 관객을 연결하고, 개별 작품을 예술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한 시대의 예술적 성취와 한계를 돌아보고 다음 세대가 참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도 비평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따라서 비평과 연구, 기록과 아카이빙은 창작지원과 별개의 부차적인 사업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품과 공연·전시의 기록, 창작자의 인터뷰, 비평과 관객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자신도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질 때 오늘의 장애예술은 한국 예술사의 중요한 일부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예술을 어떻게 비평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함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작품에서 장애의 의미를 지나치게 배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만으

6. 장애를 보되 장애만 보지 않는 비평

로 작품을 설명하려는 태도입니다. 장애인의 몸과 감각, 의사소통 방식과 사회적 환경이 작품의 형성과 표현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작품의 중요한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가의 장애유형이나 개인적인 사연만으로 작품 전체를 설명한다면 예술적 성취와 작품의 고유한 가치를 충분히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장애예술 비평에는 장애학과 접근성, 장애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문학은 언어와 형식의 관점에서, 미술은 미술사와 동시대 미술의 흐름 속에서, 음악은 음악적 구조와 해석, 연주와 창작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장애는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의미를 설명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를 보되 장애만 보지 않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작품의 예술성을 평가하면서도 기존의 비장애 중심 미학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저는 장애예술이 지닌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 온 예술적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무용에서 완성도 높은 움직임의 기준은 누가 정해 왔습니까? 음악에서 정확한 연주란 무엇이며, 시각예술은 반드시 보는 사람만을 전제로 해야 합니까? 문학에서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불러 온 것은 과연 누구의 경험이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장애예술에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여겨 온 예술의 기준이 실제로는 특정한 몸과 감각을 전제로 형성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장애예술의 가치는 기존의 예술적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새로운 표현과 감각을 보여 주고, 예술의 가능성을 넓히는 데에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예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비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길러야 합니다. 장애예술인 스스로 비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야 합니다. 장애예술 전문매체뿐 아니라 기존의 문학지와 미술전문지, 음악·공연 비평매체에서도 장애예술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예술에 대한 논의가 별도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예술 전반의 담론과 만날 때, 그 예술적 가치도 더욱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평과 기록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사람과

7. 공모와 지속지원, 함께 발전시켜야 할 두 축

조직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랜 시간 장애예술의 현장을 지켜 온 당사자단체의 역할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장애예술인들은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 후배 예술인을 발굴하고, 공연과 전시의 기회를 마련하며,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단체는 단순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며, 오늘날 장애예술의 기반을 만들어 온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모든 지원을 공모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개선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은 새로운 예술가와 신생단체의 도전을 지원하고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축적된 조직의 전문성과 공공적 역할까지 매년 단기 사업의 성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나 국립발레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같은 국가적 예술기관의 존재 이유를 매년 관객 수와 수입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장애예술인 당사자단체가 축적해 온 교육과 창작, 협력 체계와 사회적 가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 기관과 장애예술인 당사자단체의 법적 지위나 규모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공공적 가치를 단기적인 실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예술인 당사자단체는 접근성 확보와 이동, 의사소통, 전문인력 지원 등에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단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축소하거나 일률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오랫동안 축적된 전문인력과 경험, 지역사회와 예술인을 연결해 온 관계망마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새로운 예술가와 신생단체의 도전을 지원하는 공모형 사업과 함께, 전문성과 공공적 역할을 오랫동안 입증해 온 당사자단체를 위한 중장기 지속지원이 균형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속지원이 무조건적인 지원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예술적 성과, 당사자 대표성, 인재양성과 사회적 기여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을 조정하는 책임 있는 관리체계도 필요합니다. 다만 공정성을 이유로 모든 단체를

동일한 경쟁구조에 놓는 것이 과연 공정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단체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오랫동안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온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닙니다. 좋은 장애예술정책은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동시에, 오랜 노력으로 이루어 낸 성취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는 일과 축적된 가치를 지켜 나가는 일이 함께 이루어질 때, 장애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8. 앞으로의 과제: 사업의 확대에서 예술생태계의 발전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장애예술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창작과 발표에 대한 지원이 작품의 유통과 구매, 재공연과 재전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이 작품을 만들고 발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객과 만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공공부문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와 공연·전시 기회 확대를 위한 입법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의 개수와 참여 인원도 중요한 지표이지만, 그것만으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원받은 예술인이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 작품이 어떻게 유통되고 다시 공연되었는지, 예술활동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의 성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예술교육과 전문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구분하고, 장애예술인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배움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되, 이미 전문적인 활동을 이어 온 예술가에게는 그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이 교육과 멘토링을 직접 기획하고 후배 예술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넷째, 비평과 연구, 기록과 아카이빙을 장애예술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창작과 발표에 집중해 온 지원정책이 이제는 작품의 성과를 기록하고 평가하는 데까

지 관심을 넓혀야 합니다. 장애예술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창작자와 연구자, 비평가가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의 성취가 개별 사업의 실적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예술의 역사 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모형 지원과 중장기 지속지원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예술가와 신생단체에는 도전의 기회를 열어 주고, 오랫동안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온 당사자단체에는 투명한 평가를 전제로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인과 조직의 전문성이 꾸준히 축적되어야 교육과 비평, 작품의 유통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장애예술인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면서 정작 당사자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작이 발표로 이어지고, 발표된 작품이 비평과 기록으로 남으며, 그 성과가 다음 세대의 교육과 창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술가 개인과 단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역시 이러한 방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원사업을 얼마나 확대했는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지원이 예술인의 삶과 창작활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야 합니다. 장애예술정책이 외형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고 예술적 성취와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9. 맺으며 -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잠시 후에는 문학과 시각예술, 음악 등 각 분야에서 장애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의 정답을 찾기보다, 장애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갈 의미 있는 질문들이 제기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애문학에서 장애인의 경험과 문학적 보편성은 어떻게 만나는가. 장애미술에서 작가의 장애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장애음악은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 온 연주와 완성도의 기준을 어떻게 넓혀 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장애예술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예술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궁극적으로 '장애'라는 수식어가 없어져야 한다고 쉽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애라는 경험은 어떤 예술가에게는 중요한 정체성이자 창작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우는 것이 곧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장애라는 한 단어가 한 사람의 작품 전체를 대신하도록 두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술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장애를 이야기하고 싶은 예술가는 자신의 경험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예술가 역시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작품이 장애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의 온전한 예술작품으로 읽히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이 실제로 구매되고, 공공의 공연장과 전시장에서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법안들이 통과되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뜻깊은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과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예술인의 삶과 창작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장애예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예술적 성취로 이어지고, 작품의 가치가 역사 속에 남기 위해서는 창작과 비평, 기록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가치를 다음 세대로 이어 갈 예술가와 단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장애예술정책이 이제 장애예술인을 끊임없이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스스로 예술의 기준을 넓히고 다음 세대를 길러 내는 동등한 문화예술의 주체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남아야 합니다. 작품이 남아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이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기록하고 평가하는 비평과 연구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쌓여 비로소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장애예술 평장」이 서로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필요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으며, 장애예

술의 미래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 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논의가 포럼 안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과 현장, 창작과 비평을 잇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그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발제

김예지 | 국회의원

피아니스트 출신의 정치인으로, 제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피아노과와 존스홉킨스대학교 피바디 음악원 대학원 석사,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예술과 장애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포용과 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2020년 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와 공연·전시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주도해왔다. 장애예술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창작 현장과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예술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짚는다.

비평과 기록을 통한 예술적 가치의 축적, 당사자 예술인의 전문성 전수와 예술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창작과 정책, 비평이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장애예술 생태계의 방향을 제안한다.

Session 1

문학

장애인문학의 흐름과 가치

[발제] 장애인문학의 현황과 발전 방안

맹문재 |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토론] 장애인문학의 현장에서 바라본 창작과 비평

— 보리수아래의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최명숙 | 시인, 보리수아래 대표

장애인문학의 현황과 발전 방안

맹문재 |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장애인문학은 장애인들에 의해 출발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1991년 장애인문학을 추구한 『솟대문학』이 창간되어 25년 동안 100호를 발간해온 것이 그 구체적인 증거이다. 3회 추천 제도를 통해 160여 명의 장애인 신인 문인을 배출했고, 솟대문학상을 운영해오면서 장애인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솟대문학』이 2015년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2017년 『솟대평론』이 창간됨으로써 장애인문학의 흐름을 이어가게 되었다. 아울러 1991년부터 시행해온 솟대문학상도 구상 시인이 2억 원의 상금을 쾌척한 이후 2005년부터 구상솟대문학상으로 이름을 바꾸고 위상을 높여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문학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체도 장애인이다. 그렇지만 장애인문학이 장애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문학의 영역을 축소하기보다 확장하는 것이 발전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장애인문학의 발전 방안을 제시해본다.

2. 장애인문학의 발전 방안

1) 장애인문학의 장르 개념 정립

장애인문학이 발전을 이루는 데는 우선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문학의 개념을 창작 주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제재 또는 주제로 볼 것인가는 중요하다. 장애인이 직접 창작한 작품만을 장애인문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창작 주체와 상관없이 장애인의 삶과 문제 등을 쓴 작품이면 장애인문학으로 볼 것인가, 선택할 문제이다.

“장애인이 썼기 때문에 장애인문학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

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이념으로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장애인의 삶을 문학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면 여성문학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1] 장애인문학은 장애인이 쓴 것만이 아니라 장애를 제재나 주제로 쓴 작품을 포함하자는 의견이다.

물론 장애인 문인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세우려고 작품을 쓴 면을 중시해야 한다. 장애인문학은 장애인 문인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 온 면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문학의 정체성을 장애를 소재로 하는 문학이 아니라, 장애 당사자가 하는 문학"이고 "당사자들의 삶과 정서가 문학에 배어 있어야"[2]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장애인문학과 장애 문학의 관계 혹은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문학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장애 문학은 구체적인 개념"으로, 다시 말해 "장애인문학은 장애 문인이 하는 문학 일반을 가리키고, 장애 문학은 문학의 한 범주로서의 문학을 가리킨다."[3]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개념이 대표성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문학의 장르 개념에서 창작 주체를 내세우는 경우보다 창작물의 성격을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여성이 쓰거나 여성의 삶을 다루었다고 해서 여성인 문학이라고 하지 않고 여성문학이라고 쓴다. 노동자가 쓰거나 노동자의 삶을 다루었다고 해서 노동자 문학이라고 하지 않고 노동문학이라고 쓴다. 이렇듯 시인 문학이 아니라 시문학, 소설가 문학이 아니라 소설문학, 수필가 문학이 아니라 수필문학, 방송인 문학이 아니라 방송문학, 해양인 문학이 아니라 해양문학 등으로 쓴다. 따라서 장애문학이라고 쓰면 될 것이다.

그런데 '장애'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기에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 국어사전에는 장애를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4]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문학이라는 장르가 정립하기는 어렵다. 여성문학, 노동문학, 환경문학, 수필문학, 소설문학, 시문학 등의 개념과는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문학'보다는 '장애인문학'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장애인 문학'은 일반 명사로, '장애인문학'은

1 방귀희, 『장애인문학론』, 도서출판 솟대, 2019, 15쪽.

2 최현정, 「장애인들의 소수문학 활동과 의미에 대한 연구 : 들뢰즈와 가타리의 '소수예술'을 중심으로」, 『솟대평론』 3호, 도서출판 솟대, 2018, 194쪽.

3 방귀희, 앞의 책, 16쪽.

4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고유 명사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장애인문학은 아직까지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문학적인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국어사전은 물론 문학용어사전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개념화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창작자와 연구자들이 지속해서 사용하면 자연스레 개념으로 정립될 것이다. 마치 노신(魯迅)이 「고향」에서 "희망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거니와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부터 땅 위에 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되는 것이다."[5]라고 말했듯이, 사용하다 보면 개념은 만들어진다. 그렇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부단하게 써야 할 것이다.

장애인문학의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영국 장애예술연합포럼(National Disability Arts Forum)에서 장애예술 운동을 소개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영국의 장애 예술은 장애인 운동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장애 운동과 장애인 예술 운동은 모두 1970년대에 시작되었다. 둘 다 장애인이 중심인 풀뿌리 조직에 근거해 시작되었고, 정치적 행동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6] 장애인 예술 운동은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정치적인 행동을 띠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문학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나침반으로 삼을 만한 의견이라고 여겨진다. 창작과 연구 활동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운동적인 차원에서 적극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다.

2) 『솟대평론』 발간

『솟대평론』은 2017년 9월 25일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 간행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후원이 있었다. 발행인은 방귀희였고, 편집위원은 고정욱(동화작가), 김미선(소설가), 김용성(삼육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김종회(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진희(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교수), 차희정(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외래교수), 허혜정(숭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과 교수)이었다. 운영위원으로는 김재홍(문학평론가, 백석대학교 명예교수), 김진환(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시인), 방귀희(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 오진권(

5 希望本是无所谓有，无所谓无的. 这正如地上的路；其实地上本没有路，走的人多了，也便成了路.

6 주윤정, 「영국 장애 예술 운동의 전개와 발달」,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엮음, 『에이블 아트』, 사회평론, 2006, 127쪽.

이야기있는외식공간 대표), 유자효(구상선생기념사업회장, 시인)이었다.

『솟대평론』은 장애인 문예지인 『솟대문학」의 발간이 사라진 것을 다시 살려낸 것이다. 『솟대문학」은 1990년 12월 7일 강동석(소설가), 강종필(소설가), 김재찬(소설가), 서정슬(동시작가), 김옥진(시인), 김홍열(시인), 방귀희(방송작가)가 한국장애인문인협회를 창립하고, 1991년 4월 29일 창간하였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 잡지가 되었고, 회원이 1,000여 명으로 확장되었다. 역량 있는 장애인 문인도 160여 명 배출할 정도로 장애인 문인들의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장애인문학이라는 장르를 구축했다. 그렇지만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걸려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2015년 100호로 발간이 중단되었고, 2016년 6월 28일 폐간되었다.

『솟대평론』의 창간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 우선 당시의 정권에서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적용했는데, 장애예술인도 포함된 것에 대한 대항하는 실천 행동이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약자의 약함을 이용해서 마음껏 짓밟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약자 중의 약자인 장애인은 평생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겠다”[7]라는 판단으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문예지를 창간한 것이다.

두 번째는 단순히 “장애문인의 글터를 넘어 이제부터 제대로 장애인문학을 평가해서 장애인문학의 가치를 드높여야 솟대문학이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8]에서 창간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 문단에서는 장애인 문학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에 따라 장애인 문인들은 문단에서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솟대평론』의 창간은 장애인 문학의 담론이 형성되고 창작을 활성화하는 운동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솟대평론』은 2026년부터 전문적인 미술평론도 게재하고 있다. 문학을 넘어 시각 예술에 속하는 미술을 대상으로 한 평론을 실어 더욱 전문적인 평론지로 확대하고 있다. 미술평론을 본격적으로 싣기에 편집위원 체제도 세분화되었다. 문학 편집위원으로는 김재홍(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맹문재(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승하(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

7 방귀희, 「존재론적 고백」(창간사), 『솟대평론』 창간호, 도서출판 솟대, 2017, 12쪽.

8 위의 글, 12쪽.

과 교수), 천유철(국립안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외래교수), 황유지(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외래교수)가 맡고 있고, 미술 편집위원으로는 김미경(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박현희(성산HYO대학원대학교 예술융합학과 교수), 이정숙(미술평론가)가 맡고 있다. 편집부는 강남국(수필가), 설미희(소설가), 이나영(아동문학가), 최명숙(시인)이 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다.

『솟대평론』은 2026년 상반기호까지 총 18호를 간행해오고 있다. 대부분의 문예지처럼 『솟대평론』도 원고료와 제작비의 부담을 갖고 있다. 문예지 발간의 필요성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시장 판매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독자 배가와 정기 구독 등 운동 차원에서 더욱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문제와 관계된 시의성을 반영하는 기획, 좋은 창작자 섭외 등으로 장애인 문학의 담론 형성은 물론 창작자의 자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3) 구상솟대문학상 운영

구상솟대문학상은 1991년 『솟대문학』이 창간되면서 제정되어 폐간될 때까지 운영되었고, 2017년 『솟대평론』이 창간된 뒤 다시 시행되고 있다. 구상솟대문학상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솟대문학상' 신인상으로, 1996년부터는 대상과 신인상으로 구분해서 운영했다. 상금은 본상이 100만원, 신인상이 50만원이었다.

2003년 구상 시인이 2억 원의 솟대문학상의 기금을 기탁했다. 2004년 시인이 타계한 뒤 2005년부터는 '구상솟대문학상'으로 문학상의 명칭을 개칭해 시행해오고 있다. 상금을 본상 300만 원, 신인상 100만 원으로 올려 한층 더 권위가 높아졌다. 2024년부터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해 후원을 받아 상금이 5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또한 부상으로 도서출판 연인M&B에서 개인 시집을 출간해주고 있다.

구상솟대문학상의 부문은 시 장르에 한정하고 있다. 장애인 문인의 90% 이상이 시인이고, 상금을 기탁한 구상도 시인이었기에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상금 마련과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해 장르를 확대해서 장애인 문인들의 창작 활동에 더욱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구상솟대문학상 수상자는 36명에 이르는데,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구상솟대문학상 수상자 내역

회차	연도	성명	부문	작품명
1	1991	이상열	시	앰브란스
2	1992	이종형	시	어머니! 하늘빛이 어떻습니까?
3	1993	공원호	소설	신의 낙엽
4	1994	이현준	평론	장애인문학은 장애문학이 아니다
5	1995	김윤진	시	철거, 그 이후
6	1996	남인우	시	모과 하나 키우며
7	1997	최종진	시	등꽃
8	1998	최림	시	나무는 스스로에게 기대어 잠을 잔다
9	1999	이상열	시	사랑을 위하여
10	2000	최명숙	시	난을 위한 노래
		이원구	소설	황혼의 포구
11	2001	정중규	시	견우와 직녀
12	2002	권주열	시	학성문집
13	2003	배경열	평론	다시 쓰는 현대소설사
※ 2004년 구상 시인이 문학상 기금을 기증함에 따라 구상솟대문학상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명칭 개칭 등 재출발을 위해 공모를 중단함				
14	2005	최현숙	시	내 손안의 묵주
15	2006	손병걸	시	낙하의 힘
16	2007	한상식	시	어떤 중매
17	2008	이명윤	시	안녕, 치킨
18	2009	김판길	시	흔들림에 대하여
19	2010	강동수	시	감자의 이력
20	2011	문영열	시	동백의 분만
21	2012	백국호	시	해넘이
22	2013	김옥진	시	무덤새
23	2014	김율도	시	고통과 아름다움은 산 위에 산다
24	2015	김종태	시	달개비
※ 2016년 『솟대문학』 폐간으로 수상자를 내지 못함. 2017년부터 『솟대평론』 창간되어 다시 운영함.				
25	2017	김대원	시	내가 어둠이라면 당신은 별입니다
26	2018	김미선	시	바리데기 언니
27	2019	김민	시	심부름하는 아이
28	2020	손성일	시	달팽이
29	2021	한승완	시	벚꽃 백신
30	2022	설미희	시	친밀한 타인
31	2023	허상욱	시	일당 빼먹기
32	2024	김묘재	시	Deadline
33	2025	서성윤	시	동네에서 같이 살기
		고명숙	시	운명의 기도
34	2026	박성진	시	포도넝쿨이 덮은 집

※ 출처 : ① 방귀희, 『장애인문학론』, 도서출판 솟대, 2019, 55~56쪽. ② 『솟대평론』 창간호, 도서출판 솟대, 2017, 154~185쪽

4) 『장애예술인수첩』 증보판 제작

장애인문학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장애인문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장애인문학이 본격적으로 운동성을 띠고 시행된 것은 1990년 12월 7일 한국장애인문인협회가 창립되고, 1991년 장애인문학을 표방한 문예지 『솟대문학』이 창간되면서부터였다.

장애인문학의 운동에 힘입어 장애인들의 창작 활동이 증대해 각종 공모전 입상과 등단 과정을 거쳤고, 창작집 발간이 늘었다.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가 "2025년 12월 국립중앙도서관에 필자가 기증한 장애인문학 도서가 2천여 권에 이"[9]른다고 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장애인 문인들의 작품 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장애인문학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창작 전반에 관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고, 장애인문학의 발전 방안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22년 12월 7일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2022 A+ 수첩 장애예술인수첩』을 발간한 것은 의의가 크다. 이 수첩은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었다. 수첩의 이름은 『장애예술인수첩』인데, 별칭으로 'A+ 수첩'을 사용했다. 'A+'는 able, access, ace Art를 의미한다. 2018년에 제작된 『장애예술인수첩』은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기반이 되었을 정도로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이 수첩은 방송이나 기업 등에서 장애 예술인을 섭외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고, 정부 기관의 추천에도 기본자료로 쓰인다. 2022년에 제작한 『장애예술인수첩』은 2018년에 발간한 수첩의 증보판이다.

수첩의 사용 매뉴얼에 따르면 선정 방식은 언론보도를 통해 장애예술인수첩 등록신청을 받고 있음을 알렸고, 에이블뉴스 배너 광고를 2개월 동안 실시했다. 신청은 이메일을 통해 받았다. 장애예술인수첩 등록 조건은 예술 부문에서 수상 1회 이상 또는 작품 발표 5회 이상으로 경력 3년 이상의 예술인(장애인복지카드 소지)이다. 개인 작품 출간이나 개인 전시회 또는 개인 콘서트는 1회 이상이며, 활동 장르는 문학, 미술(사진과 만화), 음악(국악), 대중 예술(대중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을 포함했다. 등록 조건을 갖춘 여부를 1차로 심의한 후, 장르별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최종 등록 장애예술인을 확정 지었다.

9 방귀희, 『장애인문학론』, 도서출판 솟대, 2019, 17쪽.

장애인문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장애예술인수첩』의 증보판 제작이 필요하다. 제작 과정에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문인들의 신청이 많은 경우 다른 장르와 분리해서『장애문학인수첩』을 발간할 수 있을 것이다. 수첩의 발간은 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형태로 해서 영구성과 편리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5) '누구?! 시리즈' 간행

2016년 9월 20일 노래하는 멋진 남자 황영택을 '누구?! 시리즈 1'로 간행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48명의 예술인들이 자신의 삶과 예술세계를 소개하는 주인공이 되고 있다. '누구?! 시리즈 2'는 캔버스에서 춤추는 아름다운 여자 김형희였으며, 세 번째는 소리를 사랑하는 아리랑 소년 장성빈이었다.

2017년 '누구?! 시리즈'에는 10명의 예술인이 주인공으로 선정되어 간행되었다. 이야기 산업의 성공 신화를 쓴 김환철, 피아노 앞에서 아름다운 피아니스트 김예지, 낭만화가 탁용준, 휠체어 무용의 전설 김용우, 붓으로 세상을 잇는 캘리그래퍼 이은희, 음악을 조율하는 휠체어 지휘자 정상일, 열 개의 눈동자를 가진 어둠의 감시자 손병걸, 나눔 한류를 실천하는 피아니스트 김경민, 몸의 노래 강성국, 피아노 병창 창시자 최준 등이었다.

'누구?! 시리즈 2022'로 간행된 예술가는 황실자수장이 된 이정희, 음악의 진동을 느끼며 춤을 추는 고아라, 봄의 눈을 가진 화가 박환, 춤추며 노래하는 가수 김남제, 웹드라마작가 김뜰의 마법 등 5명이었다.

'누구?! 시리즈 2023'에는 시인이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설미희, 아름다워서 가슴 시린 화가 최지현,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 소리 없이 표현하는 엔터테이너 김리후, 구도(求道) 시인 최명숙, 물감으로 감정을 그리는 화가 김재호, 기적을 노래하는 바퀴 달린 성악가 이남현, 직업 연주자로 성장한 자폐 쌍둥이 형제 임선균&제균, 입으로 꿈을 그리는 화가 임경식, 빛과 음악 사이의 가수 김국환 등 10명이었다.

'누구?! 시리즈 2024'는 동화의 마술사 나영, 인물을 나로 표현하는 배우 하지성, 손끝에 빛을 담는 가야금 연주자 김보경, 멋지게 살고 싶은 화가 백지은, 시로 세상을 읽는 시인 허상욱, 꿈

이자 운명인 삶의 구필화가 송진현, 반전 매력을 가진 연극인 임지윤, 소리에서 빛이 나는 소리꾼 최예나,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그리는 화가 양희성, 음악으로 세상을 휘어잡은 피아니스트 김건호 등 10명이었다.

'누구?! 시리즈 2025'에는 글씨가 날개가 되어 날아오른 서예가 성정자, 무대 위에서 빛나는 춤꾼 김영민, 열정과 자연의 화가 김미경, 암전음악회 창시자 이상재, 문학을 요리하는 한상식, 만화가를 꿈꾸던 소녀에서 만화계 대장이 된 이해경, 발레리나에서 배우로 변신한 백지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성악가 김정준, 경기민요 대가를 꿈꾸는 이지원, 사설시조 소설의 개척자 주영숙 등 10명이었다.

'누구?! 시리즈 2026'(발간 예정)에는 조용히 달리는 다크호스 김경숙, 세계적인 휠체어 지휘자 차인홍, 천천히 비상하는 시인 최윤정, 꽃과 몸을 그리는 정열의 화가 박진, 한평생 문학을 사랑한 남자 강남국, 세상을 향해 '새로고침'을 전달하는 이창훈 등 6명이다.

이 시리즈를 기획해서 발간해온 당시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은 책자들의 뒷날개에 취지문을 실었다. "인문학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 삶에서 장애는 비장애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이야기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그 감동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에 장애인 이야기, 즉 장애인 인문학은 그 의미가 더 크다. 특히 장애인 예술은 장애 예술인의 삶 속에서 녹아 나온 창작이라서 장애 예술인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누구 시리즈>는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 책은 장애 예술인의 활동을 알리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기에 <누구 시리즈> 100권 발간 목표를 세웠다. 의문과 감탄을 동시에 나타내는 기호 인테러뱅(interrobang)이 <누구 시리즈>를 통해 새로운 감성으로 확산될 것으로 믿는다."

현재까지 54권을 간행한 '누구?! 시리즈'는 참신하고 본격적이고 담대한 기획이어서 기대가 크다. '누구?! 시리즈'가 완간되면 장애인 예술의 진가를 인정받게 되고, 국내에뿐만 아니라 국외에까지 장애 예술인의 가치를 알리게 될 것이다. 장애인문학을 이끌고 있는 문인들이 이 시리즈에 많이 참여해서 장애인 문인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6) 장애와문학학회의 학술 활동

2019년 1월 24일 서울시 마포구 불교방송국 지하에 있는 '현래장'이란 음식점에서 장애와문학학회 창립 모임이 있었다. 그동안『솟대문학』을 통해 장애인들이 작품을 발표하여 장애인문학이란 장르를 구축하였으나, 장애인문학을 평론하고 연구를 통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미흡해 그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장애인의 문학을 연구하는 학회를 창립하여 지속적인 연구로 장애인문학의 독창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인간 사회에 만연해 있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배제,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학회의 창립 발기인 모임에는 방귀희(숭실사이버대학교 방송 문예창작과), 윤재웅(동국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이승하(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차회정(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허혜정(숭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과), 홍용희(경희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과), 맹문재(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등 7명이 참가했다. 동참 의사를 밝힌 연구자는 김세령(호서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박덕규(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등이었다.

이날 모임에서 학회의 명칭을 '장애와문학학회'로 정했으며, 학회의 정관에 따라 윤재웅 교수를 학회의 회장으로 추천했다. 아울러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세미나의 내용을『솟대평론』에 게재하고, 학술대회를 1년에 2회 개최하고, 1년에 1회 학회지를 발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독서 모임도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와문학학회의 설립 취지도 정했다. "장애인문학의 외연을 확장하여 포용적인 문학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문학으로 장애를 재해석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나아가 혐오의 문제를 바로 잡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2019년 5월 7일 혜화동 함춘원에서 장애와문학학회 창립 세미나 회의를 가졌고, 2019년 10월 12일(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대학로에 있는 이음센터에서 장애와문학학회 창립 기념 세미나를 '문학을 통해 장애를 말하다'를 주제로 가졌다.

창립식 사회는 허혜정이 보았고, 개회 영상으로 '한국 장애인문학의 발자취', 윤재웅 회장의 개회사, 김초혜 시인의 축사, 김진우 시인의 축시, 정용준(서울예술대학교 문예학부 교수)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아울러 2019 구상솟대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는데, 수상자는 김민 시인이었다.

심사는 이승하, 허혜정, 맹문재가 맡았고, 축하객으로 조정래 소설가, 구자명 소설가, 최명숙 시인, 설미희 시인, 강남국 수필가 등이 참가했다.

세미나 1세션의 좌장은 김세령이었고, 맹문재가 「장애인 시에 나타난 자기애 고찰」을, 차희정이 「해방기 소설 속 장애인의 현실 인식」을 주제로 발표했다. 2세션의 좌장은 홍용희이었고, 이승하가 「시로써 장애를 극복한 두 시인의 시세계」를, 휘민(숭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외래교수)이 「장애인 동화에 나타난 장애의 재현과 폭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의 좌장은 박덕규였고, 발표문에 대한 토론자는 김미선(소설가), 방귀희, 손병걸(시인)이었다.

창립 기념 세미나 자료집 뒤표지에는 '문화운동 메시지 1호'를 게재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비하 발언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한다.

— 약자를 무시하며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는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 배경 설명

장애인을 바라보는 정치인의 언어가 막말 수준이다. (중략)

정치인들의 장애인지 감수성이 심각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어느 때보다 많은 말을 쏟아낼 터이다. 장애인 비하 발언 정치인에 대해 낙천·낙선 운동을 하여 퇴출시켜야 한다.

■ 퇴출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도 엄연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 행위인 것이다. 장애인 비하 발언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다.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약자를 무시하며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는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 기대 효과

말을 바로 하면 생각이 바로 서고 생각이 바로 서면 행동을 바로 한다. 장애인 · 소수자와의 공존은 말에 대한 배려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몸에 배어 있는 혐오와 배제 의식을 고치지 않으면 상처 주고 상처받는 폭력문화는 근절되지 않는다. 문화와 교양이 부끄러운 나라가 된다. 국민의 대표가 실천하지 못하면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퇴출 운동을 통해 상처받는 장애인들이 줄어든다면, 법 정의와 사회정의가 좀 더 빨리 실현될 것이다.

2019. 10. 12.

장애와문학학회 회장 윤재웅

2019년 12월 3일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지하실에 있는 설가온에서 장애와문학학회 송년회를 가졌다. 2020년 사업계획, 이사진 구성과 업무 분담, 회원 확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0년 11월 14일(토)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공휴라운지 '샘'에서 장애와문학학회 정기 학술세미나를 "장애인 리터러시, 문화적 소통"을 주제로 가졌다. 개회식 사회는 홍용희가 맡았고, 윤재웅 학회장은 개회사 이어 주제 발표로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장애 현상의 이해」를, 김슬옹(세종국어문화원 원장)은 「한글과 장애인 문식력(리터러시)과 한글 융합 교육」을, 김관용(시인)은 「웹툰, 애니메이션, 키즈 콘텐츠를 통해 본 장애」를 발표했다. 토론은 전한성(인천대), 이건범(한글문화연대), 이원영(동국대)이 참여했다. 중간 휴식 뒤 허혜정이 「다큐멘터리 <붕괴>와 장애인, 장애인 가족의 문제」를, 홍유리(영화감독)가 「장애인 성인식 개선에 관한 수행적 실천 연구 : 다큐멘터리 영화 <몸짓>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장경기(화가 겸 영화감독), 남진숙(동국대)이 참여했다.

2021년 12월 18일 장애와문학학회 학술세미나를 줌 형식으로 가졌다.

2024년 3월 8일 오후 1시에서부터 4시 30분까지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5회 장애와문학학회 학술대회를 '감각과 장애 사이'라는 주제로 가졌다. 주제 발표는 전은주(연세대 학부대학 강사)가 「장애의 시적 인식과 트라우마의 대응 앙상- 빈집에서 겨울나기의 자기분석」을, 휘민(동국대 전임연구원)이 「『화사집』에 나타난 몸의 감각과 장애 양상」을, 조수진(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이 「『토지』와 『용정별곡』에 나타난 역사 재현 비교 연구-장애 관점 인물 유형을 중심으로」를, 차성연(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이 「최대치의 사고 실험, 최대폭의 예술 실험-김원영론」을, 염선옥(서정대 국제교류처 한국어강사)이 「언어장애 소설의 재현 양상과 해방의 전망」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맹문재, 차희정이 참여했다.

2025년 9월 24일 한국장애예술인협회(회장 석창우)는 모두예술극장 모두스튜디오에서 2025 A+festival 프로그램의 한 가지로 '장애인문학 은유 속 장애 해석하기'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장애인문학에 관한 평론을 통해 장애인문학을 재평가하는 자리였다. 행사의 1부에서는 '시장(詩場)-아름다운 당신들'이란 테마로 고인이 된 장애인 시인인 남인우, 이상열, 서정슬, 최종진, 김옥진에 관한 내러티브와 시 낭송으로 구성된 영상 감상이 있었다. 2부에서는 '평장(評場)-간극 줄이기'라는 테마로 영상에서 소개된 시인의 작품에 대한 평론을 김재홍, 천유철, 황유지, 이승하, 맹문재 등이 발표했다. 3부에서는 '장애 해석-우리의 울림으로'라는 테마로 장애인 인터넷신문 '더인디고' 이용석 편집장의 '은유와 증언의 사이, 장애정체성의 문학적 재현-장애시인들과 김초엽·이치가와 사오의 장애 해석' 발표가 있었고, 2025년 구상솟대문학상 수상자인 서성윤 시인과 2022년 구상솟대문학상 수상자인 설미희 시인의 토론이 있었다.

2026년 5월 15일(금)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설미희 시 읽고, 감상&비평하기' 행사를 가졌다. 장애와문학학회와 한국장애인문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 시인을 선택해 그의 시를 시인들이 낭송하고 연구가가 그의 시 세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행사였다. 시인의 시를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 시인들이 참가해 낭송했고, 시인의 체험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또 다른 감동을 주었다. 맹문재, 차희정이 행사를 진행했고, 방귀희, 박설희, 이영숙, 박이정, 양해연, 정지윤 시인 등이 참석했다.

10월 15일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2026 A+Festival 일환으로 장애인 문학포럼을 개최한다. 주제는 '장애인문학의 서정성과 상징성'으로 이승하, 맹문재, 김재홍, 최명숙이 논문을 발표하고, 설미희, 강남국은 토론을 맡는다.

장애와문학학회의 학술 활동은 장애인문학의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학술세미나를 비롯해 학회지의 발간 등이 활발하면 장애인문학에 대한 전문적인 고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회에 필요한 예산 확보, 젊은 연구가들의 영입, 다른 단체 및 학회와 연대 확대 등으로 더욱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7) 기타 발전 방안

(1) 장애인 예술 매거진『e美지』발간

2016년 9월 30일『e美지』가 창간되었다. 장애인 예술을 하는 장애인이 1만 명에 이르는데 대중화할 수 있는 미디어가 없기 때문이었다. 발행처는 한국장애예술인협회였고, 발행인 및 편집인은 방귀희였다. 2026년 가을호로 통권 41호를 발간했는데, 현재는 석창우(화가,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가 발행인 및 편집인 체제로 편집위원은 강남국(수필가), 강원래(방송인), 김미경(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김용성(삼육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용우(한국장애인무용협회 회장), 이영식(공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이훈(피아니스트), 장승재(법학자, 소설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소외된 장애인 예술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장애인문학도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

(2) 작품 발표 및 작품집 발간 활성화

장애인 문인들은 사회의 장벽, 문단의 정보 부족, 인맥 부족 등으로 작품 발표의 기회가 어렵다. 그 대안으로 다른 문예지들과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문인들은 창작집 발간에서 불리하다. 소자본으로 운영되는 출판사에서 작품집을 간행할 경우 인지도가 낮고 영업 및 홍보가 부족해 언론 및 독자들의 관심을 받는 데 불리하다. 지명도 있는 출판사와의 연대가 필요하고, 독자적인 출판사의 운영도 고려할 수 있다.

(3) 창작 제도 개선

장애인 문인들은 창작지원금 확대, 출판과 판매 차원에서 장애인문학의 쿼터제도, 취재나 자료 수집 등을 보조해주는 전문 활동 보조인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4) 작고 장애인 문인 선집 발간

작고한 장애인 문인 중에서 문학사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그의 작품을 전집이나 선집으로 집대성해서 본격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장애인문학 은행 설치

장애인문학을 맡아 드라마, 방송, 영화, 연극, 노래, 전시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개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6) 장애인 문인의 교육 기회

장애인 문인들의 창작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초 교육뿐만 아니라 저작권, AI 활용 등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

(7) 장애인 문인의 창작실 운영

장애인 문인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창작실 및 창작에 필요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실의 운영이 필요하다.

(8) 장애인 도서관 건립

장애인문학을 집대성해서 장애인 문인들의 기록을 보존하고, 한국 문학의 다양성을 형성하는 장애인 도서관의 건립이 필요하다. 자료실을 운영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관, 음악실, 공연장,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9) 장애인문학 홍보 강화

장애인 문인의 활동, 장애인문학의 성과에 대한 언론 및 방송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신성과 시의성 있는 기획, 수준 높은 작품의 창작 및 창작집 발간에 대한 책임감도 필요하다.

(10) 장애인문학의 번역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문학의 번역에 적극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발제자

맹문재 |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시론 및 비평집

『한국 민중시 문학사』, 『지식인 시의 대상애』, 『시학의 변주』, 『만인보의 시학』, 『여성성의 시론』, 『시와 정치』, 『현대시의 가족애』

시집

『책이 무거운 이유』『사과를 내밀다』『사북 골목에서』 등 다수.

수상

전태일문학상, 윤상원문학상, 고산문학상 등 다수.

「장애인문학의 현장에서 바라본 창작과 비평」

— 보리수아래의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최명숙 | 시인, 보리수아래 대표

1. 들어가는 말

장애인문학은 장애문인들의 창작과 노력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며, 『솟대문학』과 『솟대평론』의 발간, 구상솟대문학상,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장애와문학학회 등의 다양한 시상과 단체의 활동을 통해 창작과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또한 앞으로 장애인문학의 개념을 정립하고 창작과 발표, 연구의 기회를 확대하며 작품집 발간과 번역, 교육, 기록 보존 등을 강화해 장애인문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맹문재 교수의 발제문 「장애인문학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도 장애인문학이 걸어온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문학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서부터 문예지와 문학상의 운영, 장애문인의 활동을 기록하는 일, 학술적 연구와 비평, 작품 발표와 창작 지원, 번역과 해외 교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발제문의 내용은 오랫동안 장애문인들과 함께 문학 활동을 이어 온 보리수아래의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장애인문학을 바라보는 시선과 실제 창작 현장에서 장애문인들을 만나 작품을 쓰고 발표해 온 경험에는 서로 다른 지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와 비평의 시선, 그리고 창작 현장에서 살아가는 문인들의 경험이 만날 때 장애인문학의 현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맹문재 교수의 발제문을 바탕으로 장애인문학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면서 보리수아래의 활동과 경험이 장애인문학의 창작과 발표, 교류와 비평의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2. 장애인문학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장애인문학의 개념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창작의 주체인가, 장애가 작품의 소재인가 또는 장애인이 쓴 문학만을 장애인문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문학의 정체성을 단순히 장애를 소재로 하는 문학에서 찾기보다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과 삶을 바탕으로 창작하는 문학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삶과 정서가 작품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에 앞서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장애문인들은 왜 문학을 시작했는가'라는 것이다.

보리수아래에서 여러 장애문인들을 만나고 함께 작품을 읽고 창작 활동을 이어오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문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반드시 '장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돌아보기 위해서, 가족과 사랑과 상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로는 쉽게 표현하기 어려웠던 마음을 시로 풀어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기록하고 남기기 위해 문학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다.

어떤 문인은 자신의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풍경을 시로 표현하고 어떤 문인은 가족과의 관계와 지나온 세월을 작품에 담는다. 또 어떤 문인은 사회와 사람들 속에서 경험한 차별과 소외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처럼 장애문인들의 창작 동기와 작품 세계는 하나의 틀로 설명하기 어렵다. 장애라는 공통된 경험이 있더라도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관계, 기억과 감정, 관심과 표현 방식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문학을 장애를 설명하는 문학으로만 바라본다면 작품 속에 담긴 개인의 삶과 감정, 상상력과 미학을 충분히 바라보기 어렵다. 장애는 한 사람의 삶을 이루는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이며, 장애문인 역시 한 사람의 창작자로서 사랑하고 상실하고 꿈꾸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와 소통하면서 자신의 문학적 세계를 만들어간다.

결국 장애인문학은 '장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에서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느끼며,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언어와 작품으로 만들어가는가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장애를 문학의 유일한 중심에 놓기보다 장애인의 삶 전

체와 창작의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고유한 목소리를 함께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문학의 정체성을 장애를 소재로 하는 문학이 아니라 장애 당사자가 하는 문학으로 바라볼 필요성과 당사자의 삶과 정서가 작품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3. 보리수아래에서 만난 장애인문학의 현장

보리수아래는 2005년 불교와 시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만남에서 시작하여 장애인의 신행생활과 문학·문화예술 활동을 함께 일구어 온 작은 모임이다. 회원들은 자신의 삶과 장애 경험뿐 아니라 사랑과 가족,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을 시와 글에 담아 표현해 왔다. 정기적인 모임과 시낭송, 공연, 작품집과 공동시집 발간을 통해 서로의 창작을 격려하며 세상과 소통해 왔다.

보리수아래를 운영하면서 여러 장애문학인을 만났다.

작가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장애의 경험도 달랐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시로 표현했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 사랑을 이야기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연과 일상을 노래하고,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을 작품에 담았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장애인문학이 결코 하나의 모습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애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문학 속에 나타나는 삶은 매우 다양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 바로 장애인문학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1) 개인작품집과 공동시집 ㅡ 삶을 문학으로 기록하다

보리수아래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해 온 활동 가운데 하나가 개인작품집과 공동시집을 발간하는 일이다.

장애문인이 자신의 작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을 책으로 남기고 독자와 만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래서 보리수아래에서는 회원들의 작품을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며 작품을 발전시키고, 시낭송과 작품 발표를 통해 창작자가 독자와 직접 만나는 기회를 마련해 왔다.

그동안 보리수아래에서 발간한 작가들의 작품집은 김영관의『시에는 답이 없어 좋다』, 김소영의『한 조각 사랑 편지로』, 윤정열의 수필집『내 마음속엔 아름다운 나타샤가 있어』, 홍현승의『등대』, 성희철의『수박 속같이 붉은』, 성인제의『행복한 기다림』과『당신을 닮은 오늘』, 이순애의『사다리 정원의 궁전』, 고명숙의『우리 사랑』, 장효성의『이곳에서 저 끝을 바라보면』, 최유진의『세상은 모두가 희망』, 이경남의『미안 인생아』 등 20여 권에 이른다.

이 작품집들은 단순히 장애를 소재로 삼은 책이 아니다.

각 작품에는 작가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관계,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처,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선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작품들은 장애인의 구체적인 삶과 감정, 생각이 문학적 언어로 표현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시집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보리수아래 결성 1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공동시집『단 하나의 이유까지』와 2024년에 발간한『10인 10색, 희망의 꽃을 피우다』는 서로 다른 삶과 개성을 가진 장애시인들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함께 내는 공간이었다.

한 사람의 작품만으로는 드러나기 어려운 장애인의 다양한 삶과 감정을 여러 작가의 시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시집의 의미는 더욱 크다.

이 과정을 장애인문학의 작은 역사라고 생각한다. 쓰고, 함께 읽고, 이야기하고, 책으로 만들고, 독자를 만나는 과정 자체가 장애인문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2) 장애문인은 문학의 수혜자가 아니라 창작의 주체이다

보리수아래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은 장애인을 문화예술의 수혜자에 머물게 하지 않는 것이다.

장애문인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장애문인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작품집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장애문인은 누군가가 대신 말해 주는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이

름으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한다.

이러한 활동은 문학을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보리수아래 회원 가운데에는 국제문단문인협회의 계간지『국제문단』에서 신인상을 받고 정회원이나 초대작가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의 문학작품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에 참여하고 저작권료를 받는 사례도 있다. 또한『아시아엔』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는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장애인문학이 문학책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출판, 공연, 온라인 매체, 문화상품 등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장애인문학도 어디서에서나 독자를 만난다

보리수아래의 활동은 책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회원들은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시를 낭송하고 국악과 음악 공연에도 참여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술을 통해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왔다.

2008년부터 개최한《보리수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공연을 통해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장애예술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연은 단순한 발표회가 아니다.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작품과 재능을 관객에게 직접 보여주는 창작의 장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만나는 소통의 장이다. 문학은 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될 때 또 다른 생명력을 얻는다.

또한 2022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이야기 정원의 꽃 피우다》감성시전을 열었다. 장애시인들의 작품을 서예가 이민형이 감성글씨로 표현해 선보이며 장애문학의 가치를 알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국제도서전과 불교박람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해 감성시집과 장애시인들의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작가 사인회와 책 나눔 등을 통해 장애인문학을 대중에게 알렸다.

4) 아시아 장애문인들과 교류하다

보리수아래의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시아 장애문인들과의 문학 교류이다.

보리수아래는 국내 장애인문학에 머물지 않고 미얀마,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몽골 등 여러 나라의 장애문인들과 공동시집을 만들고 문학적 교류를 이어 왔다.

이 교류는 단순히 책을 함께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북콘서트와 해외문화순례, 현지 장애인단체 방문과 장애문인들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문학을 통해 서로의 삶을 만나고 작품을 낭송하며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현실과 문화를 나누었다.

(1)『빵 한 개와 칼 한 자루』

2017년에 발간된 한국·미얀마 장애인 공동시집에는 한국 장애시인 5명과 미얀마 장애시인 8명의 작품 37편이 실렸다. 한국에서는 정준모, 홍현승, 최명숙, 이경남, 김미선이 참여했다.

2017년 10월에는 서울에서 출간기념 북콘서트를 열어 양국 장애시인의 작품을 소개하고 시를 낭송했다. 이어 미얀마 불교문화순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미얀마 장애인협회를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열며 양국 장애인단체의 교류와 협력을 논의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외 방문이 아니었다.

문학을 통해 만난 장애인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다시 만나고 연대하는 과정이었다.

(2)『시로 엮은 내 사랑을 받아주오』

2018년에는 한국·베트남 장애인 공동시집『시로 엮은 내 사랑을 받아주오』를 발간했다. 한국과 베트남 장애시인들의 작품을 양국 언어로 소개하면서 문학적 만남을 이어갔다.

베트남 장애시인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북콘서트를 열고 서울을 함께 둘러보며 문학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남산한옥마을에서 베트남 시인이 즉석에서 시를 지어 낭송하는 모습은 문학이 언어와 국경을 넘어 사람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3)『우리가 바다 건너 만난 것은』

2020년에는 한국·일본 장애인 공동시집『우리가 바다 건너 만난 것은』을 발간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쓰인 시를 번역하고 함께 묶어 두 나라 장애문인들의 삶과 문학을 연결했다. 코로나19로 직접 만나기 어려운 시기에도 공동시집을 통해 문학적 교류를 이어갔다.

(4)『내가 품은 계절의 진언』

2021년에는 한국·인도네시아 장애인 공동시집『내가 품은 계절의 진언』을 발간하여 양국 장애문인들이 문학을 통해 삶과 생각을 나누는 장을 마련했다.

당시 인도네시아와의 문학 교류에서는 장애작가 섭외뿐 아니라 작품의 번역과 감수를 맡았던 한·인니문화연구원을 통해 인도네시아 장애작가들에게 창작지원금으로 400달러를 지원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한·인니문화연구원 사공경 원장이 동참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5)『내 심장의 반쪽』

2023년에는 한국·몽골 장애인 공동시집『내 심장의 반쪽』에서는 공동시집 발간과 실제 만남이 이어졌다. 보리수아래 회원들은 몽골 불교문화순례를 통해 현지의 문화와 전통을 경험하고 몽골 장애시인들과 직접 만나 시와 장애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중증장애인 회원 6명이 몽골을 방문하여 현지 장애시인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여행 자체가 아니다. 다른 나라의 장애인과 직접 만나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경험을 했다는 점이다.

(6) 보리수아래의 아시아 교류가 장애인 문학에 던지는 의미

보리수아래가 추진해 온 아시아 장애인 문학 교류는 공동시집 몇 권을 발간한 활동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공동시집을 만들고, 양국 북콘서트를 열고, 해외문화순례를 떠나고, 현지 장애문인과 장애인단체를 만나면서 문학을 통한 만남이 사람과 사람의 교류로 확장되어 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시로 표현하고, 그 시를 번역하여 서로 읽고, 직접 만나 작품을 낭송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장애인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은 장애인문학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문학은 장애를 설명하는 문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문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장애인문학의 비평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장애인문학의 비평의 문제도 중요하다. 장애인문학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작품을 문학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문학이 한국문학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기록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그러나 장애인문학을 비평할 때 한 가지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자의 목소리이다.

장애문인이 왜 이 작품을 썼는지, 어떤 삶의 경험에서 작품이 출발했는지, 창작하면서 무엇을 고민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품을 연구하는 사람의 해석과 창작자의 생각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장애문인의 목소리가 작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문학을 문학의 비평이나 연구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5. 장애인문학의 미래 — 창작에서 비평과 교류까지

장애인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발표·출판·독자와의 만남·비평·교류가 서로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문인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창작된 작품이 책으로 출판되어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하며 더 많은 독자와 만나 문학적 공감과 소통을 이어 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작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비평하며 장애인문학의 의미와 가치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내에 머물지 않고 다른 나라의 장애문인들과 작품을 나누고 교류함으로써 서로 다른 삶과 경험을 이해하고, 장애인문학의 지평을 넓혀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될 때 장애문인은 단순히 문학의 수혜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경험을 스스로 기록하고 표현하며 새로운 문학적 의미를 만들어 가는 창작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6. 맺는 말

장애인문학을 '장애를 설명하는 문학'에 가두기보다,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삶과 만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국경과 언어를 넘어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하는 문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보리수아래에서 만난 많은 장애문인들의 작품은 이러한 장애인문학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쓰고, 누군가는 가족과 사랑을 이야기하며, 또 누군가는 자연과 일상을 노래한다. 장애를 직접 이야기하는 작품도 있지만, 장애를 넘어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생각을 담은 작품도 있다. 서로 다른 삶과 경험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장애인문학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문학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장애인문학을 하나의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삶의 목소리를 어떻게 발견하고 기록하며 존중할 것인가에

있다.

보리수아래의 활동 역시 이러한 과정과 함께해 왔다. 작품을 쓰고, 함께 읽고, 책으로 만들고, 무대에서 낭송하고, 독자를 만나며, 다른 나라의 장애문인들과 작품을 나누어 왔다.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삶이 문학이 되고 한 편의 시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경험을 이어왔다.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알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매체로서 장애인문학의 역할도 중요하다. 장애인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예지와의 연대를 통해 작품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출판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창작지원금을 확대하고, 장애인문학 쿼터제와 전문 활동보조인 제도 등을 마련하여 장애문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앞서 간 장애문인들의 작품을 선집으로 발간하여 문학적 유산을 보존하고, 작품을 드라마·영화·공연 등 다양한 장르로 연결할 수 있는 장애인문학 중개경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창작·저작권·AI 활용 교육, 창작실과 자료실 운영, 장애인 도서관 건립, 언론 홍보 강화, 해외 진출을 위한 번역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문학의 기반을 더욱 넓혀야 한다.

결국 장애인문학의 발전은 작품을 쓰는 창작자만의 과제가 아니다. 창작자와 연구자, 비평가와 출판인, 독자가 서로 만나 작품을 읽고 이야기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삶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그 목소리가 더 많은 독자에게 가닿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장애인문학은 특정한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문학으로 더욱 넓고 깊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자

최명숙 | 시인, 보리수아래 대표

강원도 춘천 출생 시와 비평으로 등단

현재

국제문단문인협회 부회장,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이사,《솟대평론》편집위원.

수상

구상솟대문학상 본상, 대한민국 장애인문화예술대상 국무총리상,
장애인의 날 유공자 대통령 표창, 계간《국제문단》문학대상,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
대한민국 인권대상(장애인 봉사 부문)

저서

시화집《삽시간의 황홀 그 너머에》

시집《심검당 살구꽃》,《사람이 사람에게로 가 서면》등 다수

수필집《마음의 쉼표 하나》,《구도시인 최명숙》등

Session 2

미술

장애인미술의 발자취와 확장성

[발제] 창작주체, 예술적 가치와 비평 담론을 중심으로

박현희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예술융합학과 교수

[토론] 장애예술의 주체는 누구인가

— 당사자 예술가의 시선과 새로운 과제

이순화 | 작가,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 부회장

「장애인 미술의 발자취와 확장성」

— 창작 주체, 예술적 가치와 비평 담론을 중심으로

박현희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예술융합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장애예술을 둘러싼 논의는 문화예술에 참여할 권리와 접근성, 창작 활동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과 함께 발전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작품을 발표하며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대했다. 이제는 장애예술인이 실제로 무엇을 창작하고 있으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작품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보다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도와 지원의 확대가 장애예술의 중요한 변화라면, 그 변화가 실제 창작 현장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있으며 작품과 작품 세계의 형성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장애인 미술의 현재를 이해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장애인 미술, 즉 예술의 중심에는 창작이 있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과 기억, 감각을 바탕으로 소재를 선택하고 재료와 표현 방법을 결정하며 반복과 수정의 과정을 거쳐 작품을 완성한다. 이 과정에는 작가가 살아온 시간과 예술적 관심, 미적 판단, 작업 환경, 재료와 도구를 다루는 방식이 복합적으로 관계한다.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시 이러한 예술적 선택과 실천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신체와 감각의 특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삶의 경험은 장애예술인의 창작을 구성하는 중요한 맥락이 될 수 있다. 신체의 움직임과 감각의 방식, 작업의 속도,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은 재료의 선택과 표현 방법, 창작 과정과 관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경험이 개별 작가의 창작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재료와 형식, 작업 방법, 작품 세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장애예술을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접근이 된다.

이러한 장애와 예술의 관계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도 논의되어 왔다. 솔방(Per Koren

Solvang, 2018)은 장애와 예술이 교차하는 지점을 미술치료, 아웃사이더 아트, 장애예술, 장애미학이라는 서로 다른 담론적 틀을 통해 검토하면서, 장애와 예술의 관계를 단일한 관점이 아니라 복수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토빈 시버스(Tobin Siebers, 2010)는 『Disability Aesthetics』에서 장애가 근현대 예술과 시각문화에서 재현되어 온 방식과 아름다움, 신체, 미적 판단의 관계를 논의함으로써 장애를 미학적 분석의 중요한 범주로 확장하였다. 이 같은 논의는 장애예술인의 신체와 감각을 단순히 기능적 차이의 문제로 보는 데서 벗어나 미적 경험과 예술적 형성의 문제로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본 발제 역시 이 두 이론을 장애예술인의 실제 창작과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비평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평에서 중심에 두는 것은 장애예술인 당사자의 목소리이다.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작가가 자신의 신체와 감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특정한 재료와 표현 방법을 어떠한 이유로 선택하는지, 작업 과정에서 어떠한 반복과 수정, 판단을 거치는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작가 자신의 언어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는 것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비평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된다.

본 발제에서 다루는 작가들의 이야기는 필자가 이들의 작품 평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인터뷰와 작가가 제공한 작품 및 관련 자료, 비평 이후 보완적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작가가 직접 이야기하는 신체와 감각의 경험,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하는 과정, 표현 방법의 선택과 수정, 작품 세계의 변화와 창작자로서의 고민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사자의 언어를 실제 작품과 창작 과정에 연결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별적인 조형 언어와 작품 세계로 형성되는지를 비평적으로 논의한다.

여기에서 장애의 경험은 작가의 삶과 창작 경험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진다. 신체와 감각의 특성은 경우에 따라 재료의 선택이나 작업의 속도,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관계한다. 동시에 같은 장애 유형 안에서도 작가가 활용하는 감각과 작업 방법, 재료와 표현, 예술적 지향은 서로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의 특성과 개별 작가의 창작이 맺는 관계를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하기보다 작가 자신의 언어와 실제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시각장애예술인의 창작은 이러한 질문을 미술 자체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확장시킨다. 시각장애예술인의 작업을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보다 이들이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그것을 어떠한 조형 언어로 구성하는가를 살펴볼 때,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회화는 시각적 관찰과 재현만으로 성립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된다. 시각적 기억과 현재의 촉각적·신체적 경험, 활용 가능한 시각, 공간 감각과 신체의 움직임 등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창작에 관계한다는 점은 미술의 성립 조건과 감각적 기반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본 발제에서는 비평을 했던 시각장애예술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창작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익숙하게 전제해 온 시각 중심의 미술 이해를 다시 검토한다. 또한 미술에서 본다는 것과 표현한다는 것, 그리고 예술적 경험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다시 질문하는 계기로 살펴본다.

2. 장애인 미술의 흐름과 창작 주체의 확장

장애인 미술의 흐름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참여와 창작 활동을 둘러싼 법·제도적 기반의 변화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예술의 개념 자체를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보다 장애예술인이 어떠한 제도적 기반 속에서 예술 활동의 주체로 자리해 왔는지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미술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포함하고 문화예술을 개인이나 집단의 경험에 기초한 창의적 표현 활동과 그 결과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술을 완성된 결과물에 한정하지 않고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료와 방법을 선택하고 작품을 형성해 가는 창작 과정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UNESCO의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1980) 역시 예술인을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예술인의 자유와 사회적·경제적 권리의 중요성을 함께 제시한다. 국내 「예술인 복지법」도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예술인은 정책적 지원의 대상인 동시에 자신의 경험과 감각, 예술적

판단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어 가는 창작 주체이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예술인이 정당한 존중을 받고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창작·전시·공연·문화예술교육·고용·문화시설 접근성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 역시 장애예술인의 작품 발표와 활동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 왔다.

2025년 발표한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주요 활동 분야는 미술 30.3%, 서양음악 23.1%, 문학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평균 작품 발표 및 참여 횟수는 16.8회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애예술인의 61.2%는 문화예술 활동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장애예술인의 활동과 발표 기회가 확대되는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인 창작을 위한 현실적 조건을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창작의 관점에서 접근성은 문화시설의 이용에만 한정되지 않고 작업 공간, 재료와 도구의 활용, 작품의 제작·보관·이동, 전시와 유통 등 창작을 지속하기 위한 환경 전반과 관계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장애예술인은 자신의 신체와 감각 경험, 예술적 판단을 바탕으로 창작 방법과 예술적 방향을 선택하는 주체이다.

같은 장애 유형 안에서도 활용하는 감각과 기억, 재료와 작업 방법, 표현 방식은 서로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의 유형이나 특성만으로 작품을 설명하기보다 이러한 제도적·환경적 기반이 개별 작가의 예술적 선택과 조형 언어, 지속적인 작품 세계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3. 창작과 작품의 예술적 가치

장애예술인의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논의할 때 중요한 출발점은 창작 주체의 경험과 선택이다. 작품의 주제와 형식, 재료와 기법, 색채와 질감, 제작 과정에는 작가가 축적해 온 경험과 예술적 판단이 조형 언어로 드러난다. 따라서 작품의 예술적 가치는 완성된 결과뿐 아니라 작가의 선택과 판단이 자신만의 표현 방법과 작품 세계로 형성되어 온 과정을 함께 고려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의 신체와 감각은 이러한 창작 과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맥락이다. 보는 방식과 만지는 방식, 신체를 움직이고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은 작가마다 다르며 재료와 도구의 사용, 작업의 속도와 순서, 반복과 수정의 과정과 관계한다. 그러나 신체적·감각적 특성이 곧바로 특정한 작품 형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료와 도구, 제작 방법을 선택하고 수정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표현 방법을 형성해 간다. 이러한 과정이 축적되면서 개별적인 조형 언어와 작품 세계가 만들어진다.

특히 시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미술에서 시각장애예술인의 창작은 '본다'는 행위와 회화적 경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회화에서 본다는 것은 외부 대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과정뿐 아니라 기억과 상상, 촉각과 신체의 움직임, 공간과 형태에 대한 감각과도 연결될 수 있다. 시각장애예술인은 각자가 지닌 시각의 상태와 감각,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창작 방법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감각적 토대가 작가의 예술적 선택을 거쳐 제작 방법과 작품의 형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비평의 중요한 지점이 된다.

앞서 살펴본 시버스의 장애미학은 장애와 신체의 다양성을 미적 경험과 작품의 형식에 관한 논의로 확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장애예술인의 신체와 감각을 작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표지로 한정하기보다 작가의 예술적 선택과 판단을 거쳐 조형 언어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비평적 기반을 제공한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과 작품 세계에 부여하는 의미 역시 예술적 가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작가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어떠한 조형 언어를 구축할 것인지,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한다. 이러한 예술적 지향은 개별 작품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작품 세계의 방향을 형성하며,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관객과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장애예술 작품의 가치는 장애의 유무나 장애 자체의 의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작품의 형식과 내용, 재료와 기법, 작가의 창작 과정과 예술적 판단, 작품 세계의 지속과 변화, 관객과의 관계 등이 서로 연결되면서 작품의 의미가 형성된다. 장애의 경험은 창작을 구성하는 중요한 맥락이지만, 작품의 예술적 가치는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어떠한 재료와 방법

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어떠한 조형적 특성과 작품 세계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볼 때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장애예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작품과 창작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비평적 단서가 된다. 작가의 언어에는 자신의 감각과 경험, 표현 방법을 선택한 이유, 반복과 수정의 과정, 작품에 부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다만 작가의 언어를 그대로 작품의 의미로 확정하기보다 그 진술이 실제 작품의 형식과 제작 과정, 작품 세계의 변화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평은 작가의 언어와 실제 작품을 연결하여 경험과 예술적 판단이 색채와 형태, 질감과 구성, 재료와 제작 방법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해석하는 과정이 된다. 본 발제에서는 장애예술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작가의 언어—창작 과정—작품의 형식—비평적 해석'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장애예술인의 신체와 감각, 삶의 경험을 창작의 중요한 맥락으로 존중하면서 그 경험이 예술적 선택과 창작 방법을 거쳐 개별적인 조형 언어와 작품 세계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비평적 접근이다.

〈표 1〉과 같이 장애예술 작품에 대한 비평은 작가의 언어와 창작 과정, 작품의 형식, 비평적 해석을 상호 연결하여 해석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때 장애예술인의 신체와 감각, 삶의 경험은 창작의 중요한 맥락이 되며 작품에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과 작가의 예술적 선택을 함께 읽는 과정에서 개별 작품의 의미와 작품 세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접근은 장애예술의 현재를 진단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장애예술의 현재를 진단한다는 것은 창작 기회와 지원 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오늘날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어떠한 관점과 언어로 읽고 평가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장애예술인을 창작 주체로 바라보고 작품의 형식과 창작 과정, 작가의 예술적 판단을 함께 논의하는 비평이 축적될수록 장애인 미술의 예술적 가치에 관한 담론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표 1〉 장애예술 작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비평적 접근

구분	주요 내용	비평에서 살펴볼 지점
작가의 언어	신체와 감각의 경험, 창작 의도, 작품에 부여하는 의미	작가가 자신의 창작과 작품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설명하는가
창작 과정	작업 방법과 도구의 선택, 작업의 순서와 속도, 반복과 수정	신체·감각의 경험과 예술적 판단이 창작 방법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작품의 형식	색채, 형태, 질감, 공간, 구성, 표현방법	창작 과정에서 이루어진 예술적 선택이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비평적 해석	작가의 언어, 창작 과정, 작품과 작품 세계의 연결	개별 작품의 조형적 특성과 의미가 작품 세계 및 미술 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4. 장애예술인의 창작 경험과 작품세계

장애예술인의 창작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작품뿐 아니라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작가가 무엇을 느끼고 선택하고 조정해 왔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발제에서 다루는 세 작가의 이야기는 비평문 작성 과정에서 진행한 인터뷰와 작가가 제공한 작품 및 관련 자료, 이후 보완적으로 나눈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였다. 세 작가는 서로 다른 신체와 감각의 경험, 창작의 시간과 작업 환경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작품세계를 형성해 왔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신체와 감각의 경험이 실제 창작 방법과 예술적 선택, 작품 세계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작가에게 창작은 삶의 변화와 함께 그 의미가 새롭게 형성되어 온 경험이었다. 그는 시각을 잃기 이전에는 작가로서의 성취와 경제적 가치가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이후에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과 삶의 경험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의미가 커졌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 경험과 삶의 변화가 예술 활동과 만나면서 작가가 창작에 부여하는 의미 또한 변화하고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는 대상 가운데 하나는 자연이다. 특히 나무와 자연의 생명성은 반복적으로 탐색해 온 주제이며, 은행나무를 다룬 〈경이로운 삶〉에서도 이러한 관심이 나타난

다. 자연에 대한 기억과 삶의 경험, 현재의 감각은 작품 안에서 서로 관계하면서 작가가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작품 세계의 한 축을 형성한다.

작업 방법에서도 자신의 감각과 신체에 맞추어 오랜 시간 형성한 구체적인 제작 과정이 나타난다. 그는 실을 이용하여 화면의 형태와 구조를 잡고 다수의 핀을 활용하여 위치를 확인하며 작업한다고 설명하였다. 경우에 따라 100개가 넘는 핀을 사용하기도 하고 네다섯 점의 작품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각각의 화면을 지속적으로 조정한다. 실과 핀은 단순한 보조 수단이라기보다 화면의 공간을 구성하고 형태와 위치를 확인하는 실제적인 창작 도구로 사용된다. 반복적인 제작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러한 방법은 작가에게 적합한 고유의 작업 방식으로 자리해 왔다.

특히 이 작가는 작업에 깊이 집중하는 순간을 '본다'는 언어로 설명하였다. 이 표현은 그의 창작에서 감각과 기억, 이미지가 형성되는 경험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가 말하는 '보기'에는 과거의 시각적 기억과 현재의 감각, 집중과 상상이 함께 관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 속에서 작품의 이미지가 형성된다. 여기에서 '본다'는 표현은 시각의 유무를 단순하게 구분하기 위한 언어라기보다 작가 자신이 창작 과정에서 경험하는 이미지 형성의 방식을 설명하는 당사자의 언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다른 작가의 창작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제한적인 시각 경험과 오랜 시간 축적된 작업 방식이 함께 나타난다. 그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일부 시각 정보를 확인하며 자신의 감각에 적합한 거리와 방법을 통해 작품을 제작해 왔다. 이러한 시각 경험은 대상을 바라보는 방법뿐 아니라 화면과 관계하는 방식, 작업을 진행하는 거리와 순서 등 실제적인 창작 방법과 연결된다.

두 작가는 모두 시각장애라는 범주에 포함되지만 창작 과정에서 활용하는 감각과 기억, 작업 방법은 서로 다르다. 한 작가에게는 과거의 시각적 기억과 현재의 촉각적·신체적 경험이 작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다른 작가에게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시각과 자신에게 익숙한 거리, 오랜 시간 축적된 감각 경험이 작품 제작과 관계한다. 이는 같은 장애 유형 안에서도 감각의 경험과 작업 방식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작가의 삶과 창작의 시간 속에서 서로 다르게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각자의 예술적 선택과 작품 세계로 이어진다.

세 번째 작가의 창작에서는 신체의 움직임과 표현 방법의 관계가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경험하면서 작업의 속도와 붓의 사용 방법을 조정해 왔으며, 오랜 창작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표현 방식을 형성하였다. 자신의 붓질을 설명하면서 작가는 "섬세함보다는 둔탁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작가가 자신의 신체와 작품 사이의 관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언어이다.

작가는 자신의 신체 움직임에 맞추어 붓을 사용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이어가면서 굵고 힘 있는 붓질과 화면의 리듬을 만들어 왔다. 여기에서 '둔탁함'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작가가 자신의 표현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사용한 언어이다. 자신의 신체적 경험을 창작 과정에서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표현 방법으로 발전시켜 가는 과정은 신체와 조형 언어가 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작가의 창작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그는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이중섭의 소, 김창열의 물방울처럼 작품을 보았을 때 특정 작가를 떠올릴 수 있는 예술적 특징을 예로 들면서 자신 역시 작품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는 작품 세계를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발언은 작가가 예술 활동을 지속적인 자기 탐색과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관객이 선호하는 작품과 자신이 추구하는 작품 사이에서 예술적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작가는 오랜 작업을 거치며 점차 자신이 지향하는 예술적 특성에 무게를 두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관객과의 관계 속에서도 작품의 독자성과 자신의 예술적 방향을 지속하려는 작가의 판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 선택되는 경험에도 그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작품 구매에 관해 작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제 삶을 인정해 준다는 도장 같은 것입니다. 잘 살아 주었다고요."

위의 표현은 작품이 관객에게 선택되는 경험을 자신의 창작과 삶이 인정받는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품과 삶, 창작과 사회적 관계가 만나는 지점이며 작품이 작가의 손

을 떠나 타인에게 도달하는 경험이 창작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목소리이다.

세 작가의 이야기는 각자가 자신의 신체와 감각, 기억과 삶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어떠한 창작 방법과 예술적 판단으로 발전시켜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 이들의 사례에서 장애예술인은 자신의 감각과 신체에 적합한 작업 방법을 찾아가고 작품의 방향을 판단하며 지속적인 창작을 통해 자신의 조형 언어를 만들어 가는 창작 주체로 나타난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세 작가는 각기 다른 신체와 감각, 기억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창작 방법을 형성하고 반복적인 예술적 선택과 판단을 통해 개별적인 조형 언어와 작품 세계를 구축해 왔다. 여기에서 장애예술인은 자신의 신체와 감각을 경험하고 창작 방법을 결정하며 예술적 방향을 형성하는 주체로 나타난다. 창작 경험을 작가의 언어와 실제 작품에 연결하여 살펴보는 것은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주체성과 작품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비평적 기반이 된다.

〈표 2〉 장애예술인의 창작 경험과 예술적 주체성 및 비평적 의미

구분	창작 경험의 주요 맥락	예술적 선택과 창작방법	창작 주체로서의 의미	비평적 의미
작가 A	시각 상실 이전의 시각적 기억과 현재의 촉각적·신체적 경험	실과 핀을 활용한 화면 구성, 여러 작품의 동시 진행과 반복적 조정	자신의 감각과 신체에 적합한 작업방법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킴	'본다'는 경험을 기억·감각·집중·상상이 결합된 창작 경험으로 읽고 작품의 이미지 형성과 연결할 수 있음
작가 B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제한적인 시각 경험과 축적된 감각 경험	활용 가능한 시각과 익숙한 거리에 맞추어 작업방식과 제작 순서를 형성	자신의 감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창작방법을 구축하고 작품세계를 지속함	작가마다 서로 다른 감각 경험과 작업방법이 개별적인 창작 특성과 작품세계로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음
작가 C	신체 움직임에 대한 경험과 지속적인 창작 활동	신체 움직임에 맞춘 붓의 사용과 작업 속도 조절, 굵고 힘 있는 표현방법의 형성	신체적 경험을 예술적 선택과 조형언어로 발전시키고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지향함	신체 경험이 조형적 특성과 작가적 정체성으로 연결되는 과정과 작품의 독자성, 관객과의 관계를 함께 해석할 수 있음

이들의 창작에서 신체와 감각, 기억과 삶의 경험은 각자의 창작 방법과 관계하며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개별적인 조형 언어로 발전한다. 시각적 기억과 촉각적·신체적 경험을 활용하여 화면의 구조를 형성하고,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감각과 축적된 경험을 작품 제작에 연결하며,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표현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각각의 과정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창작의 시간이 존재한다.

창작 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은 창작을 구성하는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지만 작품 세계가 장애의 특성만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신체와 감각의 경험과 함께 예술 교육과 작업 경력, 기억과 관심, 미적 취향과 판단, 다른 예술가에게 받은 영향, 작업 환경과 경제적 조건, 관객과의 관계 등이 함께 작용하면서 각자의 작품 세계가 형성된다.

작가가 직접 들려주는 언어는 이러한 창작의 내부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작업을 어떠한 순서로 진행하는지, 자신의 감각과 신체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특정한 표현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작품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가 작가 자신의 언어를 통해 드러난다. 이 목소리는 작품과 창작 과정, 작품세계를 서로 연결하여 읽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비평적 단서가 된다.

동시에 세 작가의 이야기에서는 창작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여러 작품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자신의 방법을 발전시키고,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감각을 작품 제작에 연결하며, 자신의 신체 움직임에 적합한 표현 방법을 선택해 가는 과정에는 각자가 축적해 온 창작의 시간이 존재한다. 반복적인 제작과 수정, 새로운 시도와 예술적 선택이 축적되면서 작품 세계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한다.

창작의 지속에는 작업 환경과 경제적 조건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작가들과의 대화에서는 작품 제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안정적인 작업 공간, 완성된 작품을 보관할 공간, 직업 활동과 창작을 함께 이어가는 문제 등이 이야기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제작할 수 있는 작품의 크기와 수, 작업의 지속성,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관계한다.

한 작가는 작업 공간과 작품 보관의 문제로 제작할 수 있는 작품의 수를 조절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동시에 회사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제공하면서 자신의 현재를 “

지금은 그림 그리는 직장인입니다”라고 표현하였다. 이 말은 창작과 직업 활동이 연결되어 지속되는 작가의 현재를 보여준다.

안정적인 창작 기회와 작업 공간, 작품의 보관과 유통은 작가가 장기적으로 작품 세계를 축적해 가는 과정과 긴밀하게 관계한다. 이 지점은 앞 절에서 살펴본 장애인 미술의 현재와도 연결된다. 장애예술인의 창작을 지속시키는 조건은 단순히 지원의 유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재료와 도구, 작품을 보관하고 발표할 수 있는 환경, 직업 활동과 창작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실제 창작의 지속성과 관계한다.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이러한 창작 현장의 경험은 장애인 미술의 현재를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창작 지원과 담론을 논의할 때에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은 현실적 조건은 창작 주체성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예술적 방향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작품 세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작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 작품의 보관과 발표, 직업 활동과 창작의 지속 가능성이 함께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창작 현장의 경험은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선택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장애예술인의 창작을 살펴보는 비평은 작가가 자신의 신체와 감각, 창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설명하는지를 듣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이어 그 언어가 실제 작품의 형식과 제작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작품 세계의 변화와 지속, 동시대 미술과의 관계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예술인의 목소리와 작품에 대한 미학적 해석이 서로 연결된다.

결국 세 작가의 창작은 각자의 신체와 감각, 기억과 삶의 경험을 자신에게 적합한 창작 방법으로 발전시키고 반복적인 작업과 예술적 판단을 통해 개별적인 조형 언어와 작품 세계를 형성해 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은 자신의 감각과 신체를 경험하고 창작 방법을 선택하며 작품의 방향과 의미를 스스로 형성해 가는 예술적 주체이다.

이러한 주체성을 작가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창작 과정, 실제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장애예술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해석하는 중요한 비평적 기반이 된다. 창작 경험은 장

애인 미술의 확장성이 창작자 자신의 경험과 언어에서 출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작가가 자신의 창작을 직접 말하고 그 언어가 작품과 연결되어 비평적으로 논의되며 작품이 다시 전시와 유통, 정책과 담론의 장으로 이어질 때 장애예술인의 창작 경험은 보다 넓은 미술 담론으로 확장될 수 있다.

5. 나가며

본 발제는 장애인 미술의 발자취와 확장성을 창작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중심에 장애예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두었다. 장애예술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기반과 창작 환경의 변화, 창작 주체에 대한 관점,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비평의 문제를 살펴보고, 필자가 평론 과정에서 만난 세 작가의 인터뷰와 작품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예술인의 신체와 감각의 경험, 창작 방법과 작품 세계의 형성, 그리고 창작을 지속하는 현실적 조건을 함께 살펴보았다.

UNESCO의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가 예술인을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창작 주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국내 「문화예술진흥법」과 「예술인 복지법」 역시 예술을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예술인을 전문적인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존재로 규정한다는 점은 장애예술인의 위치를 생각하는 데에도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장애예술인에게 정당한 존중과 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의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세 작가의 창작 경험은 신체와 감각, 기억과 삶의 경험, 예술적 관심과 작업 환경이 서로 관계하면서 각자의 창작 방법과 작품 세계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장애의 경험과 신체·감각의 특성은 작가가 대상을 경험하고 재료와 도구를 선택하며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과 관계한다. 그러나 작품 세계는 장애의 특성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예술 교육과 작업 경력, 기억과 관심, 미적 취향과 판단, 다른 예술가에게 받은 영향, 작업 환경과 경제적 조건, 관객과의 관계 등이 함께 작용한다.

이는 세 작가의 경험을 분석하면서 확인한 내용과도 연결된다. 특히 시각장애예술인이 말하는 '보기'의 경험은 장애예술 비평을 넘어 미술의 감각적 기반을 생각하게 한다. 각자가 경험

해 온 시각과 기억, 촉각과 신체의 움직임, 집중과 상상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계하면서 이미지와 작품이 형성된다. 따라서 이들의 창작을 '장애를 극복하고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라는 서사에 한정하기보다 서로 다른 감각과 몸을 가진 예술가가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작품으로 구성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장애예술인의 창작은 미술의 본질에 관한 질문과도 만난다. 시각예술에서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회화는 반드시 시각적 관찰과 재현을 중심으로 성립하는가. 기억과 촉각, 신체와 공간, 재료와 움직임, 상상과 경험 역시 회화를 형성하는 감각적 기반이 될 수 있는가. 본 발제는 이러한 질문에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장애예술인의 실제 창작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 온 미술의 조건을 다시 생각해 볼 가능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질문은 동시대 미술이 예술의 범위와 의미를 확장해 온 흐름과도 연결된다. 아서 단토(Arthur C. Danto)의 『예술의 종말 이후(After the End of Art)』에서 제시된 논의는 하나의 양식이나 역사적 방향만으로 예술을 설명하기 어려워진 이후의 다원적인 미술 상황을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시대 미술은 특정한 형식이나 재현 방식에 한정되기보다 작품이 어떠한 의미와 맥락을 형성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게 한다.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의 관계미학 역시 동시대 미술을 이해하는 범위를 작품이라는 완결된 대상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간관계와 사회적 맥락, 만남과 참여, 경험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확장하였다. 실제로 부리오는 예술적 실천의 이론적·실천적 출발점을 인간관계와 그 사회적 맥락에서 찾았으며, 그의 『관계미학』은 1990년대 이후 동시대 미술의 참여와 경험, 관계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논의로 제시되었다.

앞서 언급한 동시대 미술의 관점에서 장애예술인의 창작 경험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장애예술인의 서로 다른 신체와 감각, 기억과 삶의 경험은 창작의 중요한 맥락이 되며, 이러한 경험은 작가의 예술적 선택을 거쳐 재료와 형식, 창작 방법, 조형 언어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개별 작가가 세계를 경험하는 고유한 방식과 그 경험을 작품으로 형성하는 과정은 장애라는 범주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 미술에서 예술적 경험과 표현의 다양성을 논의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

같은 의미에서 장애인 미술은 장애라는 범주 안에서만 이해되는 별도의 미술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신체와 감각 경험을 통해 미술의 지각과 표현 가능성을 확장하는 동시대 미술의 한 영역으로 논의될 수 있다. 특히 시각장애예술인의 창작은 '본다'는 행위를 시각적 관찰에 한정하지 않고 기억과 촉각, 신체와 공간, 움직임과 상상이 함께 작용하는 예술적 경험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미술의 감각적 기반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장애예술 작품의 예술적 가치는 장애의 유무나 장애를 극복한 정도에서 찾기보다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어떠한 재료와 방법을 선택하는지, 신체와 감각의 경험이 어떠한 예술적 판단을 거쳐 조형 언어로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작품 세계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변화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때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비평의 역할도 여기에 있다. 장애예술인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창작의 내부 경험과 예술적 판단을 이해하게 하고, 작품은 그러한 경험과 판단이 구체적인 형식으로 구현되는 장이 된다. 비평은 작가의 언어를 그대로 반복하거나 장애를 작품의 유일한 해석 기준으로 삼기보다 작가의 언어와 창작 과정, 실제 작품의 형식과 작품 세계의 변화를 연결하여 개별 작가가 어떠한 예술적 선택을 하고 자신의 작품 세계를 형성해 왔는지를 기록하고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비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창작 자체가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작품을 제작할 시간과 공간, 재료와 도구, 작품의 보관과 이동, 발표와 유통, 직업 활동과 창작을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은 작품 세계가 장기적으로 축적되기 위한 현실적인 기반이다. 제도적 지원과 접근성은 예술적 가치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예술가가 자신의 창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결국 장애인 미술의 확장성은 장애예술인이 무엇을 어떻게 창작하고 있으며 그 창작이 어떠한 작품 세계와 미적 경험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깊이 살펴보는 데서 출발한다. 장애예술인의 신체와 감각, 삶의 경험은 창작의 중요한 맥락이 되고, 재료와 형식, 제작 과정과 예술적 선택은 작품을 읽는 구체적인 비평의 언어가 된다.

이러한 창작 경험이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관점과 연결되고, 지속적인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환경과 작품을 기록하고 논의하는 비평의 장이 함께 형성될 때 장애인 미술은 동시대

미술의 지각과 표현의 지평을 확장하는 예술적 실천으로 자리할 수 있다. 장애인 미술의 발자취는 결국 장애예술인들이 각자의 신체와 감각, 삶의 자리에서 작품을 만들고 자신에게 적합한 창작 방법을 형성하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이어 온 시간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창작의 과정을 살피며 작품 자체를 깊이 읽고 그 예술적 가치를 기록하는 일은 장애인 미술의 현재를 이해하는 비평적 실천인 동시에 장애예술을 통해 미술이 무엇이며 예술가가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표현하는가를 다시 질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 (2025).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Bourriaud, N. (2002). Relational aesthetics (S. Pleasance & F. Woods, Trans.). Dijon: Les Presses du réel.

Danto, A. C. (1997). After the end of art: Contemporary art and the pale of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iebers, T. (2010). Disability aesthetic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Solvang, P. K. (2018). Between art therapy and disability aesthetics: A sociological approach for understanding the intersection between art practice and disability discourse. Disability & Society, 33(2), 238–253.

Šubic, N., & Ferri, D. (2023). National disability strategies as rights-based cultural policy t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9(4), 467–483.

연구자료

장애예술인 심층인터뷰 자료. (2026). 장애예술인 3인 대상 연구자 직접 인터뷰.

발제자

박현희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예술융합학과 교수

국제문화예술융합학회 회장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이원형어워드 미술부문 심사위원장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웹진『이음』제78호「집중조명」미술 평론
계간『E美지』편집자문위원

평론 및 칼럼

『솟대평론』미술평론,『객석』시니어 문화예술교육 칼럼

작품 및 기획

개인전 40여회 개최, 포용적 예술 관련 전시 총괄 기획 다수

「장애예술의 주체는 누구인가」

— 당사자 예술가의 시선과 새로운 과제

이순화 | 작가,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 부회장

1. 서론 — 장애예술을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장애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도 확대되고 있으며,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역시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장애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던져볼 필요가 있다.

"장애예술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누가 장애예술 작품을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장애예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누가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동안 장애예술인은 정책과 제도의 중요한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장애예술인을 단순히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장애예술인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자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는 창작자이며 예술의 주체이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예술에 대한 논의는 장애예술인을 대신하여 이야기하는 것에서 벗어나,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예술과 삶,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2. 본론

1) ‘지원의 대상’에서 ‘창작의 주체’로

장애예술인에게 지원은 필요하다.

장애로 인해 창작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동과 접근성의 문제로 전시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작업 공간을 이용하거나 작품을 운송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접근성 개선, 전시와 발표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원 자체가 장애예술 정책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예술인을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주체성과 창작자로서의 정체성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예술인을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예술세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예술가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장애예술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예술인이 어떻게 자신의 예술을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2) 장애는 예술가의 전부가 아니다

장애예술인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장애와 예술가의 정체성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다.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볼 때 작가의 장애 경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

만 모든 작품을 장애라는 하나의 기준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작가가 가진 다양한 예술세계를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도 다른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자연과 사람, 사랑과 가족, 기억과 꿈, 사회와 삶 등 다양한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나는 서양화가로서 자연과 사람, 추억과 따뜻함, 희망을 그림에 담고 있다.

자연을 바라보면 지나간 시간과 그리운 사람들이 떠오르고, 일상에서 느끼기 어려운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자연과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감정과 기억을 색과 빛으로 표현한다.

장애는 나의 삶의 일부이다.

그러나 장애가 나의 예술 전부는 아니다.

나는 장애를 설명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본 세상과 내가 느낀 감정, 그리고 내가 꿈꾸는 희망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장애예술인의 작품 역시 장애라는 조건만으로 바라보기보다 **작품의 내용과 표현, 작가의 세계관과 예술적 가치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3)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

장애예술의 주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에서 장애예술인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예술인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사람은 실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이다.

작업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전시를 준비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지원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기존 제도에서 어떤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당사자이다.

따라서 장애예술 정책을 만들 때 당사자의 목소리를 단순한 의견 수렴의 대상으로만 활용

해서는 안 된다.

장애예술인은 정책의 대상인 동시에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책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사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실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장애예술인의 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예술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환경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장르와 장애 유형, 활동 경력, 창작환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도 다르다.

따라서 다양한 장애예술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4) 일회성 지원에서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으로

장애예술 정책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지속성이다.

공모사업이나 단기 프로젝트를 통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원이 끝난 뒤 다시 창작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면 장애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장애예술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만이 아니다.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 전시와 발표의 기회,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공간, 작품을 운송하고 설치할 수 있는 지원, 작품을 홍보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예술인의 작품이 장애예술이라는 특정 영역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넓은 미술계와 문화예술 현장에서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번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예술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장애예술은 하나의 모습으로 정의될 수 없다.

장애예술인마다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

5) 장애예술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어떤 작가는 자신의 장애 경험을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작가는 가족과 사랑, 사회와 자연을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예술을 특정한 주제나 형식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장애예술의 다양성은 장애예술의 중요한 힘이다.

각각의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 예술적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을 때 장애예술의 세계 역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장애예술인을 바라볼 때도 '장애가 무엇인가'보다 '이 작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함께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6) 장애예술과 비장애예술의 경계를 넘어

장애예술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애예술과 비장애예술 사이의 경계를 바라보는 방식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게 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장애를 이유로 예술적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도 안 된다.

작품을 바라볼 때 작가의 장애만이 아니라 **작품의 내용과 표현, 예술적 세계와 가치**를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

장애예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장애예술을 별도의 영역에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가운데 하나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관객이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보면서

"장애예술인이 만든 작품이구나."

라고 먼저 생각하기보다,

"이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작품과 작가의 세계를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결론 — 장애예술의 미래는 당사자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장애예술의 주체는 누구인가.

나는 그 질문에 분명하게 답하고 싶다.

장애예술의 주체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예술세계를 만들어가는 장애예술인 당사자이다.

장애예술인은 지원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술가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작품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창작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장애예술 정책과 제도는 장애예술인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예술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장애예술인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서

‘장애예술인과 함께 무엇을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장애예술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야 한다.

장애는 나의 삶의 일부이지만, 장애가 나의 예술 전부는 아니다.

나는 자연을 바라보고, 사람을 생각하고,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통해 그리움을 표현하고, 따뜻함을 나누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

나에게 예술은 장애를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세상과 연결하는 일이다.

이러한 마음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장애예술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경험이 있으며, 각자의 예술세

계가 있다.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장애예술의 미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다.

앞으로 장애예술이

‘장애인을 위한 예술’에서 ‘장애예술인이 주체가 되는 예술’로,

‘일회적으로 지원받는 예술’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예술’로,

그리고 ‘장애라는 이름으로 구분되는 예술’에서 ‘다양한 예술 가운데 하나로 존중받는 예술’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장애예술의 미래는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 예술기관, 전문가, 관객,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예술인 당사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그 시작은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정책과 현장에 실제로 반영될 때 장애예술인은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예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의 장애예술인으로서 앞으로도 그림을 통해 자연과 사람, 삶의 기억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애예술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장애예술의 주체는 누구인가.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바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예술을 만들어가는 장애예술인, 우리 당사자이다.”

감사합니다.

토론자

이순화 | 작가,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 부회장

선사랑 드로잉회 부회장, 미예찬 회장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 이사, (사)한국미협, 강북미협, 경기창작미술협회
(주)엔코아 소속작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장애예술인강사

개인전

2026.09. 이순화 개인전(소월아트 전시장)
2024.05. 이순화 개인전(더봄 갤러리)
2023.09. 삶의 휴(休)(서부지방법원) 외 다수

단체전

2026.03. 찾아온 미술전시회 2026(북부청사 평화갤러리, 의정부)
2026.03. 선사랑 드로잉회 정기전(이음갤러리서, 서울)
2026.04. 봄 마음을 잇다(강남 우제국, 서울)외 다수

Session 3

음악

장애인음악의 수월성과 사회적 영향

[발제] 무대의 크기를 넘어, 역할의 지평을 넓히다

전소영 | 협성대학교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 교수

[토론] 음악가의 목소리로 바라본 모두예술

이남현 | 성악가, 한국장애음악인협회 회장

「무대의 크기를 넘어, 역할의 지평을 넓히다」

— 장애 음악인의 역할 확대와 음악계 내 참여·비중 강화

전소영 | 협성대학교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 교수

1. 현대사회에서 문화 예술 활동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인간의 감정, 사고방식, 사회적 관계, 삶의 질 등에 다양한 영향을 주며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먼저, 음악을 통해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을 얻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음악, 미술, 영화, 문학 등의 예술 활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현대사회에서 빠른 생활 속도와 경쟁으로 지친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은 익숙한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기능을 한다.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직접 창작하는 과정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달하고, 다양한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

세 번째로, 문화예술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공감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영화, 드라마, 문학 등의 작품을 통해 자신과 다른 환경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이 높아지고,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은 환경, 인권, 빈곤, 차별 등 사회적 문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예술 작품은 복잡한 사회문제를 감정적으로 체감하게 하여 사회에 대한 관심과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은 인간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제공하고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것은 개인의 여가를 풍요롭게 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은 인간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사회를 이해하고 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의 필요성

장애인 문화예술은 장애인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대상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창작하고 표현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화예술 활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자기표현을 보장하는 수단이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할 권리가 있음을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장애예술인 지원법」)로 보장하고 있다.

『장애 예술인 지원법』은 장애 예술인의 참여 기회 보장과 국가·지자체의 예산, 행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 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창작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인식 교육 등을 통해 장애 예술인들은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참여하고 있다.

미술, 음악, 공연, 문학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장애 예술가의 작품과 활동을 접하면서 장애를 개인의 한계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특성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편견과 차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장애인의 경험과 관점은 기존에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와 표현 방식을 예술계에 더해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한다.

전문적인 예술교육과 창작활동은 장애인이 예술가로 활동하고 관련 직업을 갖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민간기업과 지자체에서 장애 예술인을 직업 예술가로 고용하여 사회 활동과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3. 장애예술인의 성장과 고용 확대를 통한 양적 기반 강화

국내 장애 예술인 지원사업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예산(약 43억 원) 편성을 출발점으로, 단순 복지 차원의 '시혜적 지원'에서 '정당한 예술창작 권리 보장 및 전문성 강화'방향으로 확대·발전해 왔다. 초기 단계는 복지·체험 중심 지원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및 기초적인 문화체험 활동 지원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2013년 약 43억 원 규모에서 2024년에는 20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또한, 서울 대학로에 국내 첫 장애 예술인 표준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이 2023년 10월 개관하였고, 이름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지만 장애인에게 우선 대관과 사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애 예술인에게 창작 및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애 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시행, 미술 분야 아트페어 및 예비 전속 작가제 확대 적용으로 시장 진출 및 자립 기반이 다져졌다. 음악 분야에서는 민간기업이 표준 사업장을 만들어 장애 연주자를 직접 고용하여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 지자체와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로, 민간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만들어 장애 연주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창원 한마음 병원, 네패스 루아 오케스트라, 골프존 파스텔 합창단, OCI 드림 앙상블, 컴투스 장애인 윈드 오케스트라, 현대엘리베이터 오르락 합창단, LS 그린보이스, 예그리나 합창단, 물빛소리 합창단, 한빛예술단, HDC 심포니 예술단 등에 고용된 장애 연주자들이 직업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사례로는 2025년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발달장애 예술인 (미술, 디자인, 사진 분야) 1명을 기간제 직원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세종시·제주도·전북틀별자치도·충청북도 교육청은 장애인 예술단을 창단하여 오케스트라를 운영 중에 있다.

세 번째로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연계하여 장애 연주자를 고용하고 활동 지원을 하는 곳은 서초한우리오케스트라, 인천시립예술단, 별별하모니아 예술단 등이 있다.

4. 장애 예술인 활동 지원 확대와 질적 기반 강화

장애 예술인에 대한 점진적인 고용 확대와 무대 연주 기회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양적인 기반을 넘어서서 이제는 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지원 방법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단순히'무대 위 연주에 참여했다'는 단순 참여 여부나 수치로 보여지는 비장애·장애의 비율만을 가지고 외형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아서는 질적인 성장이 어렵다. 진정한 창작 주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품 제작, 공연 연출, 리더십 발휘 등 **연주나 공연 내에서의 실질적인 기여도와 역할 비중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 예술인이 보조적 참여자에 머무르지 않고, 공연의 핵심적인 서사를 이끌어가는 보컬·주선율 연주, 단장·기획자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맞춤형 전문 교육 및 리더십 프로그램 강화의 필요성

단순 연주 기술 습득을 넘어 작곡, 편곡, 공연 기획, 무대 연출 등 공연 제반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연출 역량을 키우는 전문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장애 예술인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2) 주도적 역량 평가 기준 마련

예술 지원 사업 공모 시 장애 예술인의 단순 참여 명수나 횟수보다는, 작품 내에서의 주요 역할(솔로 연주자, 메인 연출, 주요 배역 등) 수행 비율과 창작적 기여도를 주요 심사 지표로 수립하여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 다양한 경연대회에서 비장애·장애 비율을 점수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아 경연대회의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치상 나타나는 비율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장애 예술가의 역할과 비중, 무대 기여도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H시 문화관광재단 지원사업 공고에는 대표자 또는 프로젝트 구성원 중 장애인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한 기준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 점진적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주요 역할을 맡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 특성에 맞춘 보

3) 배리어프리 창작 환경 및 접근성 인프라 확대

조 공학 기기 보급, 연습·공연장의 완벽한 접근성(Wheelchair accessible backstage, 전용 자막/수어 시스템 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장애 연주자가 머무르는 대기실, 공연장까지 이동할 때의 동선에도 어려움이 많아 이를 고려한 창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 장애 예술가의 고용 안정성

현재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 예술가들이 직업 예술인으로서 무대에 서고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자 유용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기간제, 단기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와 같은 불안정 노동 형태에 치중되어 있어, 지속 가능하고 전념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담보받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단발성·시혜성 고용 형태는 예술가의 전문적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예술적 자립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된다. 장애 예술가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양적인 일자리 숫자를 채우는 차원을 넘어, **장애 예술가를 대등한 전문 예술인이자 창작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지속 가능한 예술적 자립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5. 장애 예술가 음악의 수월성

장애 예술가 음악의 수월성(Excellence)은 테크닉적으로 단순히 뛰어남, 혹은 '장애 극복 신화'나 감동적 서사에 기댄 평가를 넘어, 독창적인 신체성, 미학적 정교함, 그리고 음악적 깊이를 바탕으로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 예술가의 음악적 수월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로 설명할 수 있다.

1) 다름이 만든 '대체 불가능한 독창성'

장애 예술가는 음악 창작 활동에서 표준화된 비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연주 기법과 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한계의 재해석은 기존 음악계에서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연주법, 음색, 표현 방식을 창조할 수 있다.

- 차별화된 음색과 연주 기법: 전통적 기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이를 우회하기 위해 개발한 독자적인 악기 변형 및 연주법은 음악적 다양성을 넓히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 새로운 교수법의 개발: 시중에서 출판되는 혹은 기존의 음악 교수법과는 달리 장애 예술가를 지도하면서 연구한 새로운 교수법이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고 기존 교수법보다 더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2) 높은 예술적 몰입과 기술적 정교함

수월성은 엄격한 훈련과 기술적 완성도 없이는 이뤄질 수 없으며, 장애 예술가들은 자신의 신체에 맞춘 정교한 훈련을 통해 압도적인 테크닉과 음악성을 확보한다.

- 시각 장애 음악가의 뛰어난 청각적 섬세함: 악보에 의존하지 않고 청각과 감각 기억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작용의 섬세함이나 음색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극대화 될 수 있다.

3) 미학적 재구성 및 관점의 확장

장애 예술가의 음악은 음악 미학의 지평을 넓힌다. 기존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완벽함의 기준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다.

- 기존 미학의 해체와 새로운 예술적 표현: 서양 음악 역사와 대중음악은 오랫동안 비장애인의 신체 규격, 정형화된 호흡, 전통적인 연주 기법을 '정답'으로 전제해 왔다. 장애 예술가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신체성과 감각(진동, 촉각, 비전형적인 호흡 및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기존 프레임을 깨며, 이는 단순히 장애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만들고 다루는 또 다른 뛰어난 방식'을 세계에 제시하는 예술적 혁신이다.

장애 음악가의 연주를 감상할 때에도 이제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한다"는 극복 스토리를 담은 감동 서사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음악 자체의 완성도와 독창성을 평가하고 예술이 표현하는 가치와 음악적 기여를 보는 미학적 수월성의 관점으로 예술을 바라보아야 한다. 결국 장애 예술가 음악의 수월성은 **장애라는 조건이 시혜나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열어주는 차별화된 예술적 원천으로 작용할 때 완성될 수 있다.

6. 장애 예술가의 음악, 활동과 그 사회적 영향

장애 예술가의 음악 활동은 개인의 창작 행위를 넘어 **새로운 미학적 가치를 제시하고 사회의 포용성을 확장하는 핵심적 동력**이다. 장애 예술가의 음악 활동은 예술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전세계 곳곳에서 장애 예술가와 장애인 예술단체가 음악·연극·무용·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장애 예술을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문적인 예술 창작 활동으로 바라보려는 흐름이 커지고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애 예술가를 지원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 예술가가 예술계의 동등한 창작자·연주자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장애 예술가를 문화적 생산 주체로 인식하고 장애 극복 신화 중심의 서사에서 벗어나 작품 본연의 수월성에 집중하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 일회성 복지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직업 예술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장애 예술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성원에 머무르지 않고, 참여자로서의 경험을 쌓은 뒤 연출, 감독, 제작 등 다른 구성원을 지원하는 역할로 성장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자에서 멘토와 리더로 역할이 넓어지며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은 장애 예술의 생태계가 견고해지며 더욱 그 지평을 넓혀가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장애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낸 예술'이라는 시혜적 서사를 넘어선다. 이는 예술가의 자격과 신체성, 그리고 관객의 감각적 경험에 대한 기존의 표준과 경계를 확장한다는 데 핵심적인 의의가 있다.

7. 장애 예술인 공연·전시의 한계와 향후 과제

★ 현황 및 아쉬운 점: 장애 예술이 마주한 현실적 장벽

1) 저변 확대의 한계와 관객 부족

공연과 전시가 열리더라도 객석을 채우는 관객의 절대 수가 부족한 아쉬움이 반복되고 있다. 여전히 관객층이 예술가 개인의 가족, 지인, 관련 복지 기관 관계자 등 내부 관계자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연 정보에 대한 낮은 접근성 역시 관객을 유입하는 데 결정적인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는 장애 예술을 '동시대 예술의 한 장르'로 인식하기보다 '사회 복지적 행사'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과 정보 홍보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반 대중 관객으로의 저변 확대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2) 장애 예술인을 위한 전문 교육 정보 부족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가 적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교육이 어디에서 제공되는지 알기 어렵고 장애 예술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포함한다. 장애 예술인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정보가 문화예술기관, 지방자치단체, 예술단체, 복지기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 예술인이 직접 여러 홈페이지와 공고를 찾아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 지속 가능한 장애 예술 생태계 구축

1) 통합 플랫폼 마련

흩어져 있는 장애 예술인의 연주, 전시, 공연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고 예매할 수 있는 '장애예술 전용 통합 포털'이나 기존 주요 예매 사이트(interpark, YES24 등) 내 전용 카테고리 신설이 필요하다. (출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또한 장애예술인 대상 지원사업, 교육, 공모, 페스티벌 등의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카테고리 신설도 필요하다.

2) 인력풀 확보

2024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세원 원장님의『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장애 예술가들이 전문 교육 강사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이에 장애예술인의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술 분야별 전문성과 장애인 교육 경험을 갖춘 강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강사 인력풀을 통해 지역과 장애 유형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연계하여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수어, 점자, 쉬운 자료 등 장애 유형별 교육 지원이 가능한 강사도 확보하여 장애 예술인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발제자

전소영 | 협성대학교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 교수

서초 한우리 오케스트라 지휘자 겸 음악감독
국립 강원대 연구교수, 한국 침례 신학대학교, 계원예중 전공실기 강사 역임

학력

경희대학교 학사, 맨하탄 음대 석사, 펜실베니아 주립대 음악 박사 졸업
노스웨스턴 대학교 특수교육학 석사 졸업

수상

펜실베니아 주립대 TA 역임 및 전액장학금 수여
2012년 주미 한국대사관 주관 The Korean Honor Scholarship 수여
2024년 장애인의 날 서울시장상 표창 (개인 표창)
2026년 장애인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오케스트라 단체 표창)

음악가의 목소리로 바라본 모두예술

이남현 | 성악가, 한국장애음악인협회 회장

1. 장애인 음악 활동으로 본 변화와 환경

장애예술은 지난 10여 년 동안 '복지적 문화예술활동'에서 '전문적인 예술활동'으로 그 위치가 조금씩 변화해 왔으며,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발표한『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장애 예술인의 주요 활동 분야 가운데 서양음악이 23.1%로 미술 30.3%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문학 11.5%, 대중음악 9.7%, 국악 5.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음악이 장애 예술의 비주류 분야가 아니라 장애 예술 생태계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장애 유형으로 보면 복지시설 장애 예술인 경우 발달장애 72%, 지체장애가 8.8%, 시각장애 5.7%, 청각·언어장애 0.5%, 뇌병변장애 6.5% 순으로 나타났으며, 협회·단체 장애 예술인 경우 발달장애 44.8%, 지체장애가 25%, 시각장애 15%, 청각·언어장애 5.8%, 뇌병변장애 3.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전체 장애 예술인의 74.6%가 '심한 장애'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음악 활동환경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애 예술인의 최근 3년간 평균 작품 발표·참여 횟수는 16.8회로 2021년 조사 당시 12회보다 4.8회로 약 40% 증가했습니다. 이는 장애 예술가의 활동량이 실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는 하나 활동량의 증가가 곧 성장과 안정적인 예술환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조사에서 장애 예술인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창작을 위한 지원금 부족 59.8%, 생활 안정을 위한 안정지원금 부족 43.6%, 또한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2.5%로 나타났고 특히 자폐장애는 87.7%, 지

적장애는 80.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음악 활동의 환경은 현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대는 증가하고 있지만, 무대에 지속적으로 설 수 있는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의 방향은 공연 횟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요소적 환경이 더해진 연습실, 이동, 인력지원, 공연기획, 홍보, 유통, 계약, 저작권, 고용까지 포함하는 음악가의 전 생애적 활동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 장애 예술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선에 대한 의견

가장 크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장애 예술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입니다. 그동안 장애 예술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시선은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동정과 보호의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극복과 감동의 시선입니다. 장애를 가진 예술가가 무대에 서면 그 사람이 어떤 음악적 해석을 했는지, 어떤 예술적 개성을 보여주었는지보다 먼저 “장애가 있는데도 이렇게 해낸다”라는 평가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심이 장애 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장애 예술가의 연주를 들었을 때 “장애가 있는데도 이렇게 해낸다”가 아니라 “이 연주가 어떤 음악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평가할 때 장애의 극복 여부가 아니라 음정, 프레이징, 음악적 해석, 음색, 무대, 표현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전신마비 장애인 성악가라면 장애라는 사실보다 그 성악가의 발성, 딕션, 레가토, 음악적 표현과 해석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장애 예술이 진정한 예술의 영역으로 한걸음 도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장애 예술 지원사업에서도 예술적 역량과 작품의 완성도, 성장 가능성 등이 중요한 심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장애 예술 창작 활동 지원사업 역시 사업의 적합성뿐 아니

라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예술적 역량 또는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 장애 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창작을 위한 지원금 부족'이 59.8%, '생활 안정을 위한 안정지원금 부족'이 43.6%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장애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는 단순히 인식 개선 형태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장애 예술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애 예술의 가장 중요한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3. 장애 예술의 변화와 과제

장애 예술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주로 복지·인권·문화향유·접근성·정책지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장애 예술가를 문화예술의 향유자가 아닌 창작자이자 실연자, 전문 예술가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장애 예술의 중요한 과제는 '실연자 중심의 표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화란 장애 예술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장애 예술가가 전문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설·교육·연습·공연·지원·고용 등 예술활동 전 과정의 기본적인 환경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화시설은 장애인 관객을 위한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 예술가가 무대에 서고 연습하며 창작하는 데 필요한 무대·연습실·대기실·장비 이동·리허설·보조 인력 등의 실연자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장애인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가'를 넘어 '장애 예술가가 전문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예술가는 장애 자체가 아니라 예술적 전문성과 독창성을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교육과 훈련, 공연경력, 작품 발표, 공정한 평가와 함께 지속적인 고용과 직업예술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장애 예술의 표준화는 궁극적으로 장애 예술의 독창성을 확장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

니다. 장애 예술가의 신체적 특성, 감각, 경험과 보조기술 등을 새로운 예술적 표현으로 발전시킨다면 장애 예술은 단순히 '장애인이 하는 예술'을 넘어 하나의 장르로서 독창적인 미학적 예술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 예술정책은 복지에서 예술로, 향유에서 실연으로, 지원에서 성장으로, 배려에서 독창성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장애 예술의 미래는 단순히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 예술가가 전문 예술가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표준화된 환경과 생태계를 구축할 때 장애 예술은 수월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4. 장애인 음악가의 고용형태

2024년 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 관련 직업의 고용형태는 파트타임·시간제 46.7%, 기간제·계약직·임시직·촉탁직 39.7%, 일용직 27.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만으로 음악 활동을 지속하는 구조는 아직 제한적으로 장애 예술인의 직업적 현실을 보면 아직 안정적인 고용구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표 1〉 와 같이 공공기관과 기업이 장애인 음악가를 직접고용하고, 음악가가 소속 문화예술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 고용 모델이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 음악가의 직업화는 '지원금을 받는 예술가'에서 '계약하고 고용되는 예술가'로 최저 임금을 넘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위하여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표 1〉 직업 장애 예술인 대표 고용사례

순번	유형	형태	사례
1	지자체	교육청 소속 활동	세종시교육청 장애인 예술단
2	지자체+민간	단체소속 활동	서초란 우리 오케스트라
3	기업고용	기업 문화예술직무 활동	부산 부민병원 THE 행복
4	표준사업장	예술가 고용 및 공연직무 활동	한빛 예술단

5. 결론

지난 몇 년 동안 장애 예술은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작품 발표와 참여 횟수도 증가했고, 장애 예술을 위한 전문공간과 지원정책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는가”를 넘어 “그 사업이 예술가의 삶과 창작 환경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음악 분야에서는 다음 네 가지 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 구조가 필요합니다.

장애 예술가가 매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공연 하나를 만드는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안정된 환경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악 분야도 장애 예술인 우선구매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장애 예술가의 노동권을 예술정책 안에서 함께 다뤄야 합니다.

예술가는 공연할 때만 예술가가 아닙니다.

연습하고, 창작하고, 이동하고, 회의하고, 교육하고, 작품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노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 예술정책은 지원금 정책을 넘어 예술노동 정책으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접근성을 비용이 아니라 창작 인프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장애 예술가에게 접근성은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닙니다.

연습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공연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악보와 음악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지원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악기·장비·이동·리허설·무대기술·통역·보조 인력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성 체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장애 예술의 주류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장애 예술을 별도의 특별한 영역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술 생태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티켓 사이트에 장애 예술 카테고리를 만들어 한 번에 확인되도록 노출하고 공연으로는 의무 조항으로 지자체 기획공연 클래식 음악회에 장애인 음악가가 출연하고, 장애 예술가가 일반 예술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창작하는 환경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예술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6. 마무리

마지막으로 저는 장애 예술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장애 예술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어떤 예술환경을 함께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예술은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문화활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장애 예술가도 자신의 음악으로 관객과 만나고,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창작 환경 속에서 작품 활동을 지속하며 다음 작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장애를 가진 음악가가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는 시대에서, 그 음악가가 어떤 음악을 만들고 어떤 연주를 하는지가 뉴스가 되는 시대로 가야 합니다.

2024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72.5%의 인력보조 필요, 59.8%의 창작지원금 부족, 43.6%의 생활 안정지원금 부족, 46.7%의 파트타임·시간제 고용 비율은 아직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매우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최근 3년간 작품 발표·참여 횟수가 약 40% 증가했지만, 활동량의 증가가 곧 안정적인 예술환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된 예술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이

지표가 어느 장애 유형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유형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장애 예술가들이 함께 성장하는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은 더 많은 무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창작 환경을 만들고”

“더 공정한 평가와 고른 분포로 활동하고”

“더 안정적 체계로 예술활동을 지속 확대하게 하며”

장애 예술가가 예술 생태계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은 함께 듣고, 함께 느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예술 언어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는

“장애인이 예술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넘어

“장애 예술가가 예술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장애 예술의 방향성이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

이남현 | 성악가, 한국장애음악인협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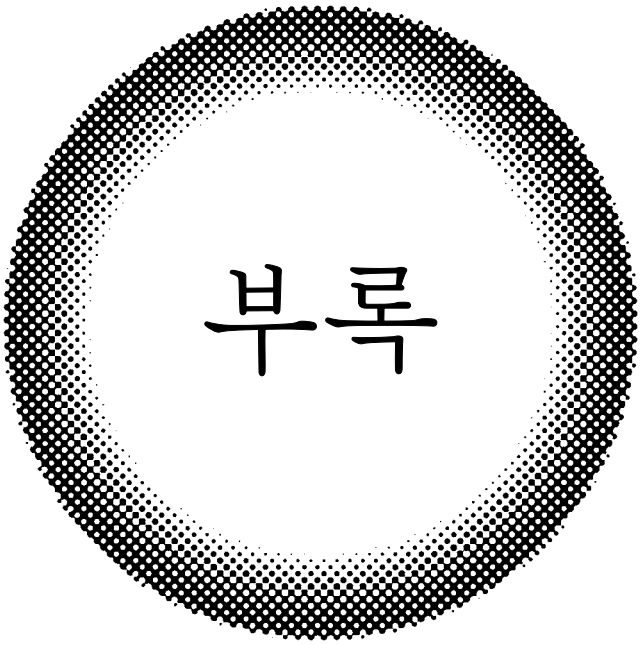
국제 장애인 공연예술제 예술감독
현재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국내·외로 활발히 활동

공연

UN본부 신탁통치회의장 초청공연
Carnegie Hall 초청공연
Sydney Opera House 초청공연
Jakarta 국제학교 초청공연
Italian Aperto Concert
세계부산장애인대회 개회식 공연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축하공연
기적을 노래하는 바퀴달린 성악가 이남현 콘서트(전국 진행)

오케스트라 협연 및 방송출연

KBS Symphony Orchestra, Austria Festival Orchestra, Russian Chamber Orchestra,
New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외 다수 오케스트라 협연 등
KBS 아침마당 초대석 출연 외 다수 방송 출연 등



장애예술 짧게 알아보기

방귀희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장애예술 짧게 알아보기

방귀희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1. 장애인예술 발자취

2007년 함께누리 사업 시작

장애인복지 업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재활과'가 설치된 것은 1981년인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정책 가운데 장애인예술사업은 전무한 상태에서 참여정부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를 실시하면서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2007년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함께누리 사업이 시작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문화예술 업무가 공식화된 것은 2009년 '장애인문화체육과'가 마련되면서부터이다.

그런데 장애인예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문화예술이라는 광의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권과 예술권이 혼재되어 있었다. 장애인문화는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문화시설에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문화를 즐기기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복지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2013년 장애인예술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서 예술국으로 이관되어 예술정책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면서 전문예술 분야에 편입되면서 예술로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0년 동안 운영해오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2017년도부터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이관된 후 점점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2011년 한 젊은 예술인이 병들어 굶어 죽은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장애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실시되는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다. 서비스 대상자를 예술 활동 실적과 예술 활동 소득 등으로 정하는 '예술활동증명'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했는데 장애예술인은 그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장애예술인들은 독립 법률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률 제정 운동에 나섰다. 8년 동안 시위 한번 없이 오로지 문건으로 국회 문을 두드려서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을 기반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2023년), '장애예술인 의무공연전시제도'(2024년)가 마련되었다.

또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이 수립되었고, 동 법률 제8조를 근거로 『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년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은 기초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은 5개 추진전략 각각에 2개씩 과제를 담아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그 하위에 68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있다.

장애인예술 공간 마련

2012년 장애예술인들은 법률 제정과 함께 장애인예술의 허브가 되는 공간 마련을 위해 뭉쳤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애인복지계에서는 서울 여의도에 14층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인 ‘이룸센터’를 2008년에 개관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문화예술계에서는 이룸센터를 모델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주장하였다.

드디어 2015년 문화의 거리 서울 대학로에 ‘이음센터’를 개관하여 그 운영을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맡게 되었다. 이음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작은 규모라서 점점 확장되는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해 2023년 서울 충정로에 장애예술인들이 공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갖춘 ‘모두예술극장’이 문을 열었으며, 2024년에는 서울스퀘어 5층에 장애예술인 전용 전시장인 ‘모두미술공간’이 마련되었다

2. 장애인예술 기초 정보

장애인예술의 정의

영국예술위원회에서 정의한 장애인 예술(Disability Arts)은 장애인의 문화와 개성을 통해 장애인에 의해 생산된 예술 작품이고, 예술에 장애인의 참여를 지원해주는 과정이라고 기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Disability Arts를 장애예술로 번역하였기에 지금도 장애예술이라고 표기

하고 있지만 2013년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에서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장애인예술'로 지칭하고,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장애예술인'으로 정의하였다. '장애인예술 장르별 지원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에서는 장애인예술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한 바 있다.

그런데 문화를 넣으면 '장애인문화예술'이라고 한다.

장애예술인의 정의

● 장애문화예술인

-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조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문화예술인 활동 실태조사(2007),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현,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예술인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2018),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은 아래 5가지 기준에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을 예술인이라고 생각함
  ②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예술활동증명)에 등록되어 있음
  ③ (기관/협회/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활동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
  ④ 장애인 및 예술 관련 협회, 전국적 단위의 행사에서 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음
  ⑤ 장애인 및 예술 관련 협회, 전국적 단위의 행사에서 초청되어 예술활동을 한 적이 있음

● 장애예술인 활동가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2018),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예술 활동가는 2018년 한해 동안 기관/협회/단체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창작활동을 하여 발표, 전시, 공연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관련 문건을 읽다보면 '장애예술가'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지만 「장애예술인지원법」 제3조(정의)에 따라야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예술인 인구

한국고용정보원(2009)이 발표한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 의하면 예술인 수가 18만여 명이고, 장애인출연율(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이 5.47%인 것을 감안하여 장애예술인 수를 9천8백여 명, 약 1만 명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의 2.1%가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측면에서 추산하면 등록장애인 수 250만 명의 2.1%인 5만여 명이 장애예술인이고 장애인계에서 주장하는 장애인인구 500만 명의 2.1%로 계산하면 10만 명이 장애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장애예술인 수는 1만 명 수준이다(방귀희, 2013).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예술인 추정 인구는 3만2천여 명이다. 이 조사에서는 장애예술인 6천여 명, 장애인예술 활동가 2만6천여 명으로 구분하였다.

장애인예술 장르 구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문화예술의 범주는 통상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정의를 사용하는데 장애인예술의 범주도 위와 같다. 하지만 통상 문학, 미술, 음악 그리고 나머지 장르를 합하여 공연예술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장애인문학이란 장애를 소재로 한 문학이냐 아니면 장애인이 주체가 된 문학이냐의 논란이 있지만 1991년 장애인문학을 표방한『솟대문학』창간호에서 장애인문학을 후자로 정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문학이란 새로운 장르를 구축하게 한『솟대문학』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15년 겨울 100호를 끝으로 폐간되었지만 미국 스탠포드대학 도서관에서『솟대문학』의 가치를 인정하여 연구 비치용으로 한 질을 구입하여 한국의 장애인문학이 세계에 알려졌다.

2017년『솟대평론』을 반년간으로 창간하여 장애인문학 평론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고, 2019년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이 모여서 '장애와문학학회'를 창립하여 장애인문학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장애인미술을 정의하는 것은 장애인문학보다는 수월하다. 미술 작품의 주제를 장애인으로 하는 예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미술을 장애를 가진 미술인들의 작품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면 구필, 발가락에 붓을 끼우고 그림을 그리면 족필이라고 구분을 하여 구족화가로 칭하는 범주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3명의 구족화가들이 세계구족화가협회에 가입되어 장학금(scholarship)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미술은 1995년에 협회를 창립하여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단법인 승인을 받은 한국장애인미술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음악은 장애인들의 음악 활동이다. 청력이 발달한 시각장애인들이 음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피아노, 바이올린, 클라리넷 등 연주를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많다. 또한 지

적, 자폐성 발달장애인 연주자와 국악인들이 속속 탄생하고 있다.

장애인공연예술은 연극 부문에서 장애인연극이 활성화되었으며, 장애인 배우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연기를 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발레리나 고아라, 휠체어무용 김용우의 활동으로 대표될 수 있는 장애인무용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 승인을 받은 20여 개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우리나라 장애인예술을 이끌어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 승인을 가장 먼저 받은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1993)로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와 전국장애인합창대회가 대표사업이며, 한국장애인문화협회(2003)는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명칭 변경을 한 한국장애예술인협회(2009년 한국장애인문화진흥회)는 2016년 장애인예술 전문잡지『E美지』를 창간하면서 장애인예술 언론을 형성하였고, 장애예술인 문학적 초상화 프로젝트 '누구시리즈' 100종을 목표로 한국을 대표하는 장애예술인의 아카이브를 만들어가고 있다.

빛소리친구들은 장애인국제무용제를 11년째 실시하여 국제화에 힘썼고,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의 패럴스마트폰영화제,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의 이음가요제가 대표사업이다.

2012년 장애인문화예술단체들이 힘을 모으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를 창립하여 2013년부터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와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그리고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페스티벌을 매년 주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공연예술협회(한빛예술단), 관현맹인전통예술단,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는 시각장애인예술단으로 매년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연을 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밖에 크고 작은 장애인문화예술 단체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태조사로 나타난 장애예술인 욕구

2007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문화예술인 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예술인은 90.1%가 발표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답변하였다. 장애예술인은 창작활동의 기회부족으로 96.5%가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69.3%가 수입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여 장애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음이 드러났다.

'2012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장애예술인의 82.18%가 발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5년 전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고, 같은 조사에서 장애예술인의 활동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창작 비용 지원이 43.9%로 1순위를 차지하여 창작지원금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서는 예술 활동의 어려움으로 ①교육적 어려움, ②창작 및 발표의 어려움, ③공간 이용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러나 3년 이상 예술 활동을 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에서는 모든 예술 분야에서 예술 활동에 있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예술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창작기금/수혜자 확대가 66.3%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였다.

『2021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실태조사』에서 장애예술인은 창작지원 확대가 70.5%로 가장 높은 욕구를 보였다.『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창작지원금 부족(26.7%), 연습·창작공간 부족(19.3%), 공간대관 어려움(15.6%)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작지원금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창작지원금에 대한 욕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질문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모든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예술인들이 원하는 1순위는 창작 비용 지원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장애인예술 평가

장애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낮다 35.3%, 다소 낮다 24.9%, 그저 그렇다 27.5%로 87.7%가 사회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바라보는 인식이 매우 이중적이란 것을 알 수 있는 연구가 있다.

박혜신(2010)에 따르면 같은 무용공연을 무용수들이 청각장애인임을 알고 공연을 본 그룹은 감동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73.3%), 예술 전문성 평가 항목은 아주 낮았다. 반면 무용수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공연을 본 그룹에서는 예술 전문성 평가는 높고, 감동은 낮았다. 그 이유는 장애예술인을 전문예술인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인식 때문에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예술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고 그로 인해 장애예술인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예술은 과거 또는 현재의 주류예술 자본이나 Habitus(고급예술)의 코드에 맞지 않는다거나(Riddell and Watson, 2007; 윤삼호 외, 2012), 장애인예술은 하위 문화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장애인예술이 주류예술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Gosling, 2006; 주윤정, 2012).

이렇듯 장애인예술은 장애라는 낙인 때문에 낮은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두예술 철학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장애인예술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영국은 한계가 없는 예술(Unlimited Arts), 미국은 특별한 예술(Very Special Arts), 일본은 가능성의 예술(Able Arts)로 장애예술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예술을 모두예술(Arts of All)이라고 명명한 것은 장애·비장애의 구분을 넘어 모두가 즐기는 예술이 되어야 한다는 장문원 미션을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예술은 뒤늦게 시작하였지만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수준이 뛰어나기 때

문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장애인예술은 그 정체성을 살려서 발전시켜나가면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멋진 예술이 될 것이다. 한국의 장애인예술이 머지않아 K-컬쳐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방귀희(2019), 『장애인예술론』, 솟대
한국장애학회(2022),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방안 연구』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발간 자료(2019~현재)

※ 본 내용은 관련 참고자료를 발췌·정리한 것으로, 원자료의 용어 사용을 반영하여 '장애인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026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 책은 2026년 11월 10일 이음아트홀에서 열린
장애예술 비평포럼 「평장評場, 모두예술을 해부하다」의 자료집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처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발행인 방귀희

발행일 2026.11.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https://kdac.or.kr

이 책에 수록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전재, 복제, 변형 및 배포를 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예술 비평포럼
온라인 자료집 QR